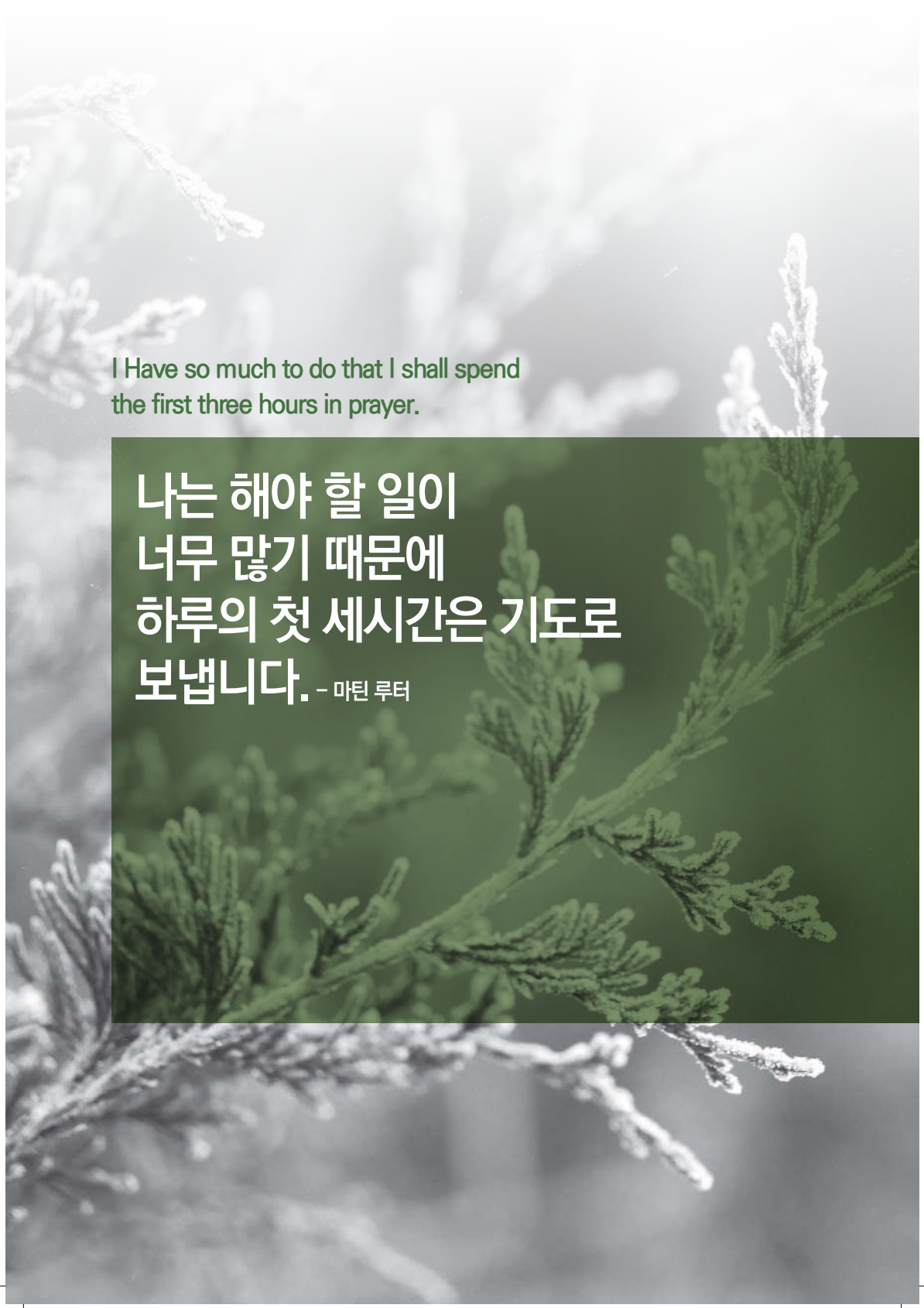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ANNA


I Have so much to do that I shall spend
the first three hours in prayer.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첫 세시간은 기도로
보냅니다. - 마틴 루터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January 2023, 1월에는

Time 시간 _____

Place 장소 _____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_____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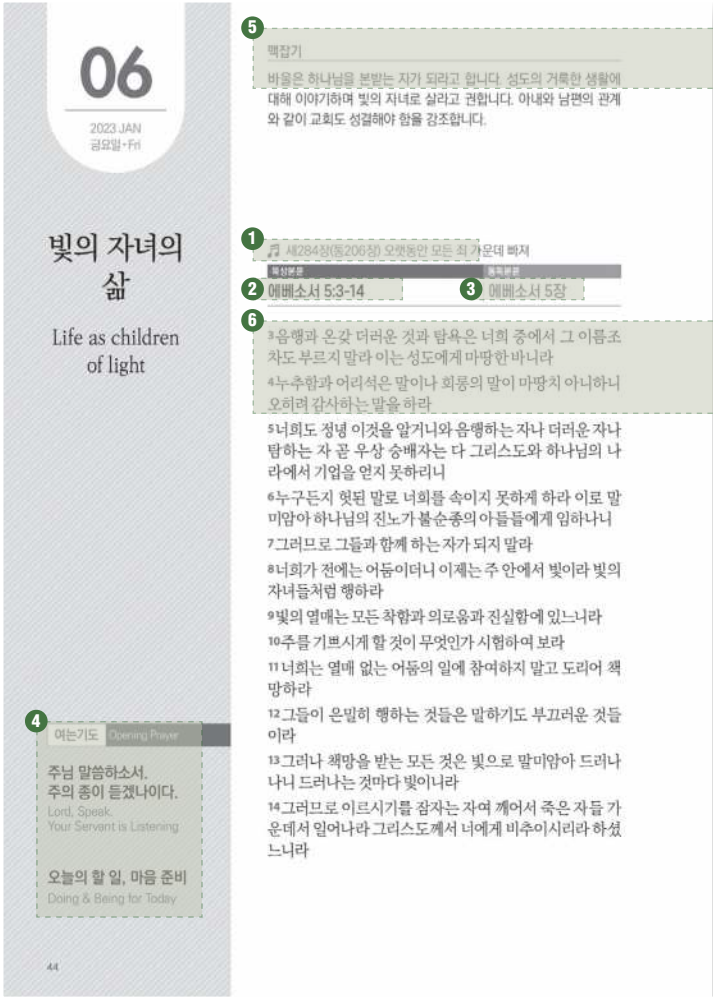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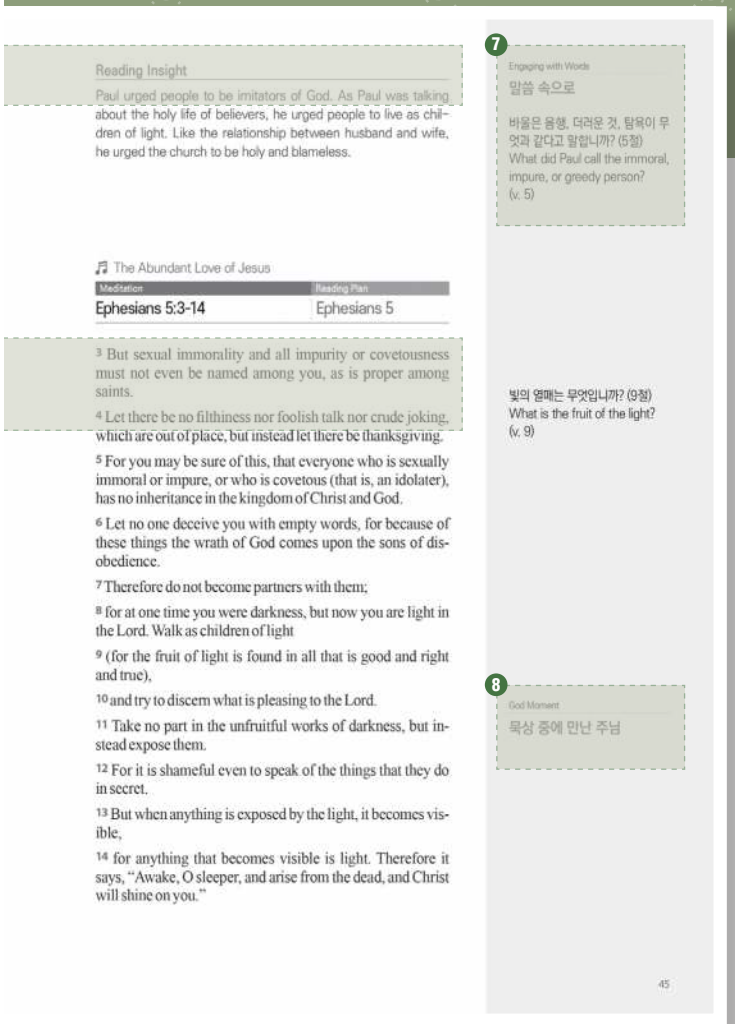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Ephesians 5:3-14 | Reading Plan: Ephesians 5

3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4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5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6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7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8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9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10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11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12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13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14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45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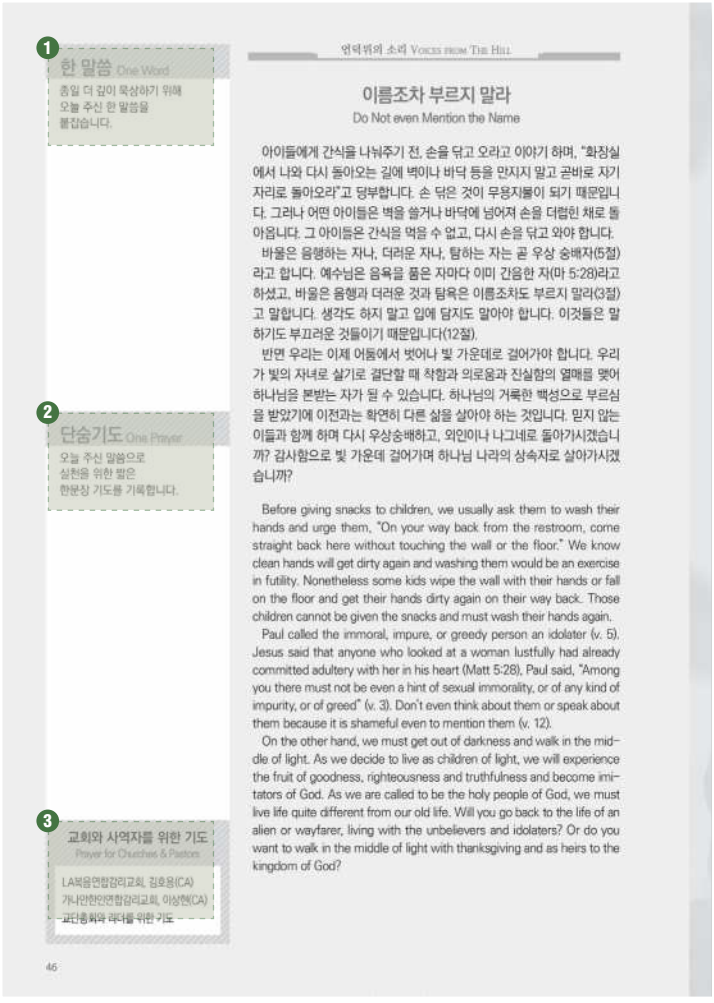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❶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❶ 한 말씀 One Word
총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입습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목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셨고,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lif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46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3 January

01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1	2 에베소서 Ephesians 1장 ☐	3 에베소서 Ephesians 2장 ☐
8	9 갈라디아서 Galatians 1장 ☐	10 갈라디아서 Galatians 2장 ☐
15	16 빌립보서 Philippians 1장 ☐	17 빌립보서 Philippians 2장 ☐
22	23 골로새서 Colossians 3장 ☐	24 골로새서 Colossians 4장 ☐
29	30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1–2장 ☐	31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3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에베소서 Ephesians 3장 ☐	5 에베소서 Ephesians 4장 ☐	6 에베소서 Ephesians 5장 ☐	7 에베소서 Ephesians 6장 ☐
11 갈라디아서 Galatians 3장 ☐	12 갈라디아서 Galatians 4장 ☐	13 갈라디아서 Galatians 5장 ☐	14 갈라디아서 Galatians 6장 ☐
18 빌립보서 Philippians 3장 ☐	19 빌립보서 Philippians 4장 ☐	20 골로새서 Colossians 1장 ☐	21 골로새서 Colossians 2장 ☐
25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1장 ☐	26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2장 ☐	27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3장 ☐	28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4–5장 ☐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새해를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2023
신년 가정예배서

예배의 부름 가족 중

*예배를 시작하며 가족 중 한 명이 아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찬송 새304장(통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기도 다함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만나 반가운 교제를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해 주셔서 더 예수님을 닮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이 올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께만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위에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직장과 세우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부모에게 보람과 상급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희 가족들의 필요 채우시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저희 가정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 17-19절

*가족 중 한 명이 성경을 읽거나 부모와 자녀가 교독합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 가족 중

*가족 중 연장자가 아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신령한 복, 찬송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속량하사 성령으로 인치신 은혜입니다.

둘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걸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저버렸을 때, 그 땅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이며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죽음과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승리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매일 매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어려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담대히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셔 부르심의 소망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능력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새366장(통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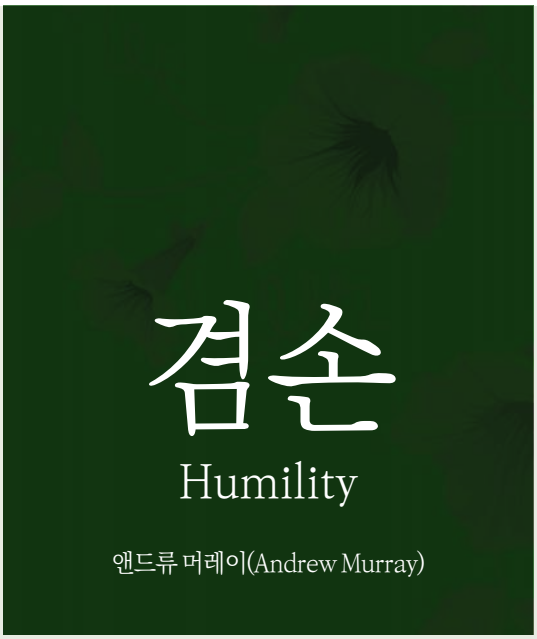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새해 다짐과 서로를 위한 기도 다함께

*서로 새해 소망과 다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나눈 내용을 기록하여 일 년 동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새해 다짐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기도문 다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 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4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겸손

오늘날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설교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안에는 진정한 겸손이 없다고 고백하며 비통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이나 이러한 겸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겸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노예나 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그를 항상 기쁘게 하고자 하며 그의 번영, 영광 그리고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충실된 종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종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죄와 자아로부터의 자유(the liberty from sin and self)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new joy)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 안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하나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자아와 죄로부터 새롭고 충만된 자유(new and fuller liberty)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명령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피조물의 영광(the glory of the creature)이며 예수님의 정신(the spirit of Jesus) 그리고 천국의 기쁨(the joy of heaven) 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가 진정한 성화(true sanctification)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 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따라간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허리를 굽힐 수 있으며 어떠한 섬김도 인내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바울은 로마 감금 생활 중에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 내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주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며 읽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에베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활발해졌고, 대표적으로 풍요의 상징인 아데미(Artemis, Diana)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찾았고,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 기념품을 사고파는 자들로 상권을 이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 기록합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악귀를 내쫓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했고, 이에 우상 장수였던 데메드리오는 금전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직공들을 모아 아데미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마술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마술 책을 불태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였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하나 됨을 주제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아시아인들과 유럽인, 종과 노예가 섞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 된 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서신의 전반부(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며, 그 계획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깨트리고 한 새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성별, 사회적 지위, 계급, 민족에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선언합니다.

후반부(4-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부, 부모, 주종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듯 한마음, 한 성령으로 서로 섬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로 기도해야 하므로 영적 싸움을 이겨가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앙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고원 지대의 북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특히, 본서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서신입니다(갈 6:11).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써야 했어야 했던 만큼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한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갈 1:6).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펜을 들어 친히 자신의 손을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행위를 근거로 하는 거짓 복음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복음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변호(1-2장), 해설(3-4장), 적용(5-6장)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합니다. 본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기본 진리를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오직 참 구원을 보장한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어 결국 율법의 형식과 정죄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구원에 이르는 것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 참 자유를 얻은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대적하는 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도시로,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 번창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

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헌금에 대해 감사하여 죄수의 몸으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관심과 노 사도를 향한 빌립보 교인의 헌신이 엮어진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본서는 바울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있는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딱딱한 형식이나 교리가 없습니다. 본서는 바울의 내면적 신앙의 간증이고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서신 전체에서 '기뻐하다'라는 동사를 9번, '기쁨'이라는 명사를 5번 사용하고 있으며, 4장에서만 '기뻐하다'라는 말을 6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재차 반복하여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를 크게 전, 후반으로 나누면 1-2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3-4장은 '평안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표본이신 그리스도를, 후자는 우리의 확신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줍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빌 4:12)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빌 4:13)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도전을 심하게 받고 있었으나 아직 이단에게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할례, 금식 등의 의식적인 금기사항을 지켰고, 금욕주의, 중재자로서의 천사 숭배, 영계에 들어가는 것으로써의 신비적 체험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스러움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

한 이성을 입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는 전반부(1-2장)는 교리편이고, 후반부(3-4장)는 실천편으로, 전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후자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언급합니다.

골로새서는 창조와 구속의 주님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록함으로써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아울러,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성과 권능에 순종하여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강한 신뢰만이 구원의 요건일 뿐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고초를 겪고 강제로 추방당한 후, 암비폴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군대의 요충지였으며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항구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창한 도시로써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돈을 받고 가르치던 헬라의 철학자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물론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와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이 혼재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세 안식일 동안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본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로 밤중에 도망하게 됩니다. 베뢰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그들을 피해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 복음 전파를 하고 있을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고, 급히 도시를 떠나야 했으며, 교회는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어린 교회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예상처럼 그들에게는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바울의 사역에 의심을 품는 이들에게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는 A.D. 50-51년경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전반부(1-3장)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핍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설명하며, 재림의 때에 소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아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편지의 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4-5장).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의 어조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비해 매우 강력하며 엄중합니다. 더 심한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재림의 지연 등으로 성도들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바울은 심해져 가는 박해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함(1장)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2장),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3장)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01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홍진호 목사 (시카고중앙연합감리교회, IL)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일 년이 되면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주신 호흡의 처음과 끝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육신은 날로 쇠퇴해가지만,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지혜를 얻는 삶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2)

2023년 한 해도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과 조건과 상황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변함없는 선하심의 은혜로 이끌고 붙들어주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5)

02

2023 JAN
월요일 • Mon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Blessings of the Heavenly Real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1-2절)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3-14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가르쳐줍니다(15-23절).

♬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묵상본문	통독본문
에베소서 1:1~6	에베소서 1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Reading Insight

Apostle Paul sends greetings from a prison in Rome to the churches in Ephesus (vv. 1–2). He then follows his greeting with a praise of God's work of salvation (vv. 3–14), prays that the believers in Ephesus may come to know the power of God and teaches that Jesu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vv. 15–23).

♫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1:1~6	Ephesians 1

1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who are in Ephesus, and are faithful in Christ Jesus:

2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3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4 even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In love

5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

6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ith which he has blessed us in the Belov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In Ephesians 1, how many times do we see "in Christ" repeated?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12, 14절)
Why did God choose us and save us? (vv. 6, 12,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God's Plan of Salvation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옮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을 Church shopping이라고 합니다. 설교가 좋아서, 교회학교가 잘 되어서, 찬양이 뜨거워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내가 교회를 골라 출석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칭합니다. 하늘의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진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창 12),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출 3). 핍박자였던 사울을 찾아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행 9).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거저 주신 은혜로(6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When people visit different churches looking for a church to join that meets their expectations and desires, we call it "church shopping." People choose to join a church because they like the pastor's sermon, the education program, their music, or other things about the church. When doing so, people think that they are the ones who choose the church. Some even think that they "choose" to become a believer. But the Bible teaches that God chose us before creation and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Paul describes this as a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realm. The essence of this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realm is the change in one's status to becoming a child of God. The change in status takes place not by our works but only by God's choosing and grace.

God called Abram and made him the father of many nations (Gen 12). God called Moses and delivered Israel from bondage (Exod 3). God also came to Saul and made him into an apostle for the Gentile world (Acts 9). In the same way, God first came to us, loved us and saved us from our sins. We are saved not by our works or by any qualification but only by grace (v. 6) that is freely given to us. How can we not praise God for this amazing grace?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03

2023 JAN
화요일 • Tue

'한' 새 사람

"One"
New Humanit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없던 상태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 주는 평화

묵상본문	통독본문
에베소서 2:11-22	에베소서 2장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Reading Insight

Paul points out to the believers that they were dead in their transgressions and sins but were saved by the great love and grace of God. Even the gentiles who were without God were sav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became people belonging to God. Whether Jew or Gentile, everyone should be a church together.

♫ He Is Our Peace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2:11-22	Ephesians 2

11 Therefore remember that at one time you Gentiles in the flesh, called "the uncircumcision" by what is called the circumcision, which is made in the flesh by hands--

12 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d from Christ, alienat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13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14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us both one and has broken down in his flesh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15 by abolishing the law of commandments expressed in ordinances, that he might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in place of the two, so making peace,

16 and might reconcile us both to God in one body through the cross, thereby killing the hostility.

17 And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off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18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19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20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stone,

21 in whom the whole structure,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22 In hi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place for God by the Spir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11-12절)
What words in the text today describe our condition before being saved? (vv. 11-12)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13-18절)
What did Jesus accomplish by dying on the cross? (vv. 13-1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Breaking Down the Dividing Wall

물과 기름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화제, 계면활성제 같은 화학 성분을 첨가하거나 매우 빠른 진동을 이용하면 그 둘이 혼합됩니다. 물과 기름같이 화해하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하여도 외인이었으며, 나그네였으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11-12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임에 틀림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인종, 성별, 학연 등과 같은 큰 범주뿐 아니라, 출생연도, 이민 온 햇수, 좋아하는 스포츠 팀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선을 긋고, 담을 세워 경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Oil and water do not naturally mix together. But if we use emulsifiers or surfactants or use very fast vibration, oil and water can be mixed. Jews and Gentiles were once like oil and water that could not be mixed together. But Jesus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be together as one.

The recipients of Paul's letter in Ephesus were mostly Gentile Christians. They were people who did not receive circumcision and who were separate from Christ. As such, they were also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vv. 11-12). In the eyes of Jews, they were obvious sinners. But Jesus destroyed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and, in Christ and through the blood of Christ, the Gentiles became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God's household. For this reason, the Gentiles and the Jews became "one" humanity together through "one" spirit in Jesus Christ.

What barriers and walls do you see in your life that divide people? People constantly draw lines between one another and build dividing walls using things like people's race, educational background, age, immigration history and even sports. As people who have been saved by grace, we should strive to break down the dividing walls and seek to become "one" church together. Jesus himself destroyed the dividing walls and became our peace.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4

2023 JAN
수요일 • Wed

구원의 경륜의 비밀

The Mystery of Administration of Salvation

맥잡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먼저 알게 하심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중보합니다.

♫ 새504장(통266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에베소서 3:1-6	에베소서 3장

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Paul says that the revelation of God's administration of grace to him was for the purpose of preach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Gentiles in Ephesus who are the recipients of his letter. Paul prays on behalf of the believers that they may grow in Christ and that they may come to know the love of Christ.

♫ Heralds of Christ, Who Bear the King's Command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3:1-6	Ephesians 3

1 For this reason I, Paul, a prisoner for Christ Jesus on behalf
of you Gentiles--

2 assuming that you have heard of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 that was given to me for you,

3 how the mystery was made known to me by revelation, as I
have written briefly.

4 When you read this, you can perceive my insight into the
mystery of Christ,

5 which was not made known to the sons of men in other
generations as it has now been revealed to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by the Spirit.

6 This mystery is that the Gentiles are fellow heirs, members
of the same body, and partakers of the promise in Christ Je-
sus through the gosp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갇힌 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행 21-22장)
Why did Paul become a prisoner of Christ?
(v. 1; Acts 21-22)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4-6절)
What is the mystery of Christ that Paul came to understand?
(vv. 4-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욱(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사명
The Mission of the One Who Understands the Mystery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리고 그의 변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엡 3:1; 갈 2:7-8; 롬 1:5, 11:13; 행 9:15; 22:21 등).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시기와 비난, 모함과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당당히 밝히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엡 3:6)"이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가까워지는 것(2:13)",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2:22)"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1:10)"입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비밀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행 20:24)"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더 많은 곳에 드러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In various places in Paul's letters and also in his arguments, he describes his identity as an "Apostle for the Gentiles" (Eph 3:1; Gal 2:7-8; Rom 1:5, 11:13; Acts 9:15; 22:21). At the time, preaching the Gospel to the Gentiles resulted in receiving criticism and insult from both the Jews and the Romans. Eventually, Paul was imprisoned in Rome and, there in prison, he wrote his letter to the Christians in Ephesus. The reason why he wasn't afraid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calling himself 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is because he understood the mystery of Christ.

The mystery of Christ was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v. 6)," and those who were onc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Eph 2:13) and we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Eph 2:22). It also included bringing "unity to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Eph 1:10). Paul's mission was to proclaim his mystery with boldness and conviction even in the face of trials and sufferings.

As Paul confessed,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Acts 20:24). We, who became the church after understanding the mystery of Christ, must also do our best so that God's salvation may be achieved in all the places of the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05

2023 JAN
목요일 • Thu

옛 사람과 새 사람

Old Self vs. New Self

맥잡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옛 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 새289장(통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묵상본문 **에베소서 4:17-24** | 통독본문 **에베소서 4장**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Paul urged believers in Ephesus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they have received, and to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He also implored them to put off their old self and to put on the new self in Christ.

♬ What a Wonderful Change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4:17-24	Ephesians 4

17 Now this I say and testify in the Lord, that you must no longer walk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minds.

18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due to their hardness of heart.

19 They have become callous and have given themselves up to sensuality, greedy to practice every kind of impurity.

20 But that is not the way you learned Christ!--

21 assuming that you have heard about him and were taught in him, as the truth is in Jesus,

22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and is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s,

23 and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24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옛 사람, 이방인의 삶은 어떠합니까?(17-19절)
What does old self or alien life look like? (vv. 17–19)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2절)
What do we need to put off? (v. 2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We Were Not Taught That Way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이나 직무를 맡게 되면 그에 걸맞은 자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같이 복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엡 1:4).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옛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됩니다.

에베소는 여러 우상 신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순례객들에게 신상을 만들어 팔거나, 귀신을 쫓는 부적 판매가 성행했습니다. 신전 주변 순례객들을 상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음란과 부정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사람을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17-19절)을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단호히 책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20절)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운 자들의 새 삶을 살라고 경고합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There is a proverb, "Position engenders the character". It means that once a responsibility or a duty is imposed, the person will grow into it becoming worthy of the responsibility or the duty. Our positions are completely reversed. We were sinners bound to be dead but now we are children of God, heirs, and people of God. That is, our existence itself has completely changed. We are neither aliens nor wayfarers. God called us and blessed us so that He could make us holy and blameless (Eph 1:4). If we knew what our existence was, we could not live like our old self. We must not live like our old self.

Ephesus was a city full of shrines for idols and many economic activities occurred around those shrines. Merchants selling images of idols to pilgrims and sales of amulets to chase away ghosts were rampant. The business of food sales and accommodations around the temples for pilgrims visiting were booming, and the city was inundated with idolatry, sorcery, debauchery, and injustice. Here were the reasons why those Ephesians who decided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must put off their old self, which wa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and become their new self. Paul sternly rebuked the Ephesian believers who were still living the life of their old self (vv. 17–19) and said, "You, however, did not come to know Christ that way" (v. 20). Paul further implored them to live a new life learned from the truth in Christ.

New status requires new life. We were saved by grace and became our new self. It is right to live life worthy of salvation. What have we learned from Christ? Are we living in the truth of Chris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6

2023 JAN
금요일 • Fri

빛의 자녀의 삶

Life as Children of Ligh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이 교회도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새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묵상본문	통독본문
에베소서 5:3-14	에베소서 5장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5:3-14	Ephesians 5

3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4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5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6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7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8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9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10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11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12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13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14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셨고,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lif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07

2023 JAN
토요일 • Sat

전신갑주를 입고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맥잡기

바울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와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묵상본문	통독본문
에베소서 6:10-20	에베소서 6장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Paul talked about the lifestyle of believers by comparing it to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slaves and their masters. Paul explained the reason why Christians must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about the full armor itself and ended his epistle.

♫ March We Onward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6:10-20	Ephesians 6

10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11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12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cosmic powers over this present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13 Therefore take up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firm.

14 Stand therefore, having fastened on the belt of truth, and having put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15 and, as shoes for your feet, having put on the readiness given by the gospel of peace.

16 In all circumstance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darts of the evil one;

17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18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To that end keep alert with all perseverance, making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19 and also for me, that words may be given to me in opening my mouth boldly to proclaim the mystery of the gospel,

20 for which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that I may declare it boldly, as I ought to spea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1–13절)
Why must w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vv. 11–13)

전신갑주는 어떤 것 입니까? (14–17절)
What is the full armor? (vv. 14–21)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What must we, the believers who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do? (v. 1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Be Strong in the Lord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을 의지하여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란이 없고,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할수록 마귀의 간계는 더욱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마귀의 간계와 악한 영의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였을지라도 담대히 할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Until the end Paul urged us to be "in Christ (the Lord)." We believers must be strong in Christ by the power of the Lord. Christ already died on the cross, was resurrected and overcame the authorities of Satan. When we are in Christ, we can be strong by His power.

Paul did not say that when we are in Christ, distress would go away and calm and comfort without worry would be maintained. "The rulers, the authorities,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will incessantly shake us, tempt us, and make us fall. The more we want to be in Christ the subtler the tricks of Satan. Therefore, we need to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We need to incessantly meditate on the Word of truth and cling to the Gospel. Paul also urged us to pray for each other. We are not alone. Jesus Christ tore down barriers among us and made us united as one. Jesus is the head of our church. The tricks of Satan and the attacks of evil spirits may continue but they will never make the church fall.

When believers and the church are in Christ, they will proclaim boldly what needs to be proclaimed as Paul did even while he was in chains. We need to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from our head to our toes. We need to stay awake and pray always so that Satan does not dare.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8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그럴 수도 있지

이요한 목사 (달라스연합교회, TX)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인근에 빌립보교회라는 한인 이민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크고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머슴교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참석했던 빡빡한 세미나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교회의 가치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10가지 가치"라고 불리는 목회 원리가 있습니다. 이젠 다른 것은 잊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지막 가치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치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주장, 서로 다른 선택,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와는 정말 관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나에게 큰 잘못을 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원리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내가 기준이 되는 데서 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면 잔뜩 격앙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용납의 원리인 "그럴 수도 있지"를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을 향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OOO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그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지는 못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였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향해서 작은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 일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분을 향한 용납하는 마음을 연습해보세요. 그분을 향해 생긴 작은 마음의 여유는 점점 넓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알고보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고, 알고보니 그분도 평범한 누군가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엡4:2)

09

2023 JAN
월요일 • Mon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Gosp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 새262장(통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묵상본문	통독본문
갈라디아서 1:1-10	갈라디아서 1장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Reading Insight

There were agitators of different gospels in the Ephesian Church which was planted with the price of the blood of Jesus. Paul clearly declared, "There is no other Gospel."

♬ Of Him Who Did Salvation Bring

Meditation	Reading Plan
Galatians 1:1-10	Galatians 1

1 Paul, an apostle--not from men nor through man, but through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2 and all the brothers who are with me, To the churches of Galatia:

3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4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deliver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5 to who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6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him who called you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7 not that there is another one, but there are some who trouble you 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8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to you a gospel contrary to the one we preached to you, let him be accursed.

9 As we have said before, so now I say again: If anyone is preaching to you a gospel contrary to the one you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10 For am I now seeking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8-9절)
What did Paul say would happen if other gospels than that of Paul were delivered? (vv. 8–9)

내가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 '내가'복음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Are there other gospels called "My Gospel" that I spread? If so, what is it?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다른 복음, '내가'복음
Different Gospel, "Me Gospel"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더해 긴박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진정성을 편지의 서두에 밝힙니다. 자신의 사도성은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쓰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며 그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갈 1:12)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4절)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도 다른 복음이 만연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복음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삶에서 체득한 지혜가 복음의 자리를 대신해 '내가'복음을 쓰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고 내 마음대로 교인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다급하고 확실한 권면을 들으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Do you see Paul's heartfelt and compassionate thoughts towards the Galatian church? Moreover, we can even see tension. The situation must have been dire, because Paul revealed in the beginning of the letter the authenticity of his apostleship. His apostleship did not come from any man but came personally and directly from Jesus Himself and God to emphasize his authority as an Apostle. In other words, the Gospel Paul had delivered was the only genuine Gospel because the Gospel was based on the revelation of Jesus (v. 12).

News of the Galatian church was delivered to Paul. It was news of an agitating group of people spreading different gospels to the Galatian church.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v. 4). This is the only Gospel and there is no other. We can only attain salvation by believing Jesus through faith and becoming Christians.

Even today among our churches a different Gospel is prevalent. In other words, it is called "My Gospel." My knowledge and the wisdom acquired through my life experience replace the Gospel and become "My" Gospel. The place of Jesus is taken by "me." Everybody is "self-centered" and tries to run the church according to their own will and tries to manipulate other congregants. Please listen to the dire and clear admonition of Paul. There is no other Gospel.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10

2023 JAN
화요일 • Tue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elieving
Only Jesus Chri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정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영생을 얻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묵상본문 **갈라디아서 2:11-21**

통독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Reading Insight

The power of a Christian lies on the cross. When I was crucified with Christ on the cross, the power arises from it and the cross becomes the cross of power. The crux of the cross is the eternal life I gain when I die on the cross and Jesus Christ lives in me and the power is displayed in my life.

♫ Have You Been to Jesus for the Cleansing Pow'r?

Meditation	Reading Plan
Galatians 2:11-21	Galatians 2

11 But when Cephas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stood condemned.

12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 circumcision party.

13 And the rest of the Jews acted hypocritically along with him, so that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by their hypocrisy.

14 But when I saw that their conduct was not in step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Cephas before them all, "If you, though a Jew, live like a Gentile and not like a Jew, how can you force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15 We ourselves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16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17 But if, in our endeavor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too were found to be sinners, is Christ then a servant of sin? Certainly not!

18 For if I rebuild what I tore down, I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19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to God.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21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 purpo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게바와 바나바가 범한 외식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2절)
What was the ceremonial practice that Peter and Barnabas deferred to? (v. 12)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If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what happens to me? (v. 1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If I Die and You Live

10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 존(Little John)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 수업을 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저축했습니다. 반면에 베짱이는 놀다가 아무 준비 없이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 후에 개미와 베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남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숙제를 보니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개미는 준비된 걸로 행복하게 살았다. 베짱이는 굶어 죽었다"이고, 두 번째는 "개미가 음식을 베짱이에게 나눠줘서 베짱이도 죽지 않고 살았다. 베짱이는 고맙다고 눈물 흘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틀 존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존이 쓴 내용은 "개미는 베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생님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틀 존이 정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상한 아이'라고 염려하는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며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 리틀 존이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도 아니요, 율법을 준수함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This is a story about Little John who is about 10 years old. At school the story of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of Aesop's fable was told at a class. The ants worked hard through the summer and saved enough food. On the other hand, the grasshopper did not work and without preparation winter came. The teacher gave this homework question to the class,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after that?" The next day, the teacher found that the answer to the homework question was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as "The ants lived happily with what they saved and the grasshopper died of starvation." The other was, "The ants shared food with the grasshopper so that the grasshopper escaped from starvation and lived too and the grasshopper cried out of thanksgiving." But Little John's answer was quite different. This was John's response, "The ants gave all their food to the grasshopper, and the ants died of starvation." And next to it was a drawing of a cross. The teacher who was not a believer did not understand. Instead, the teacher suspected that Little John was an emotionally unstable boy and requested a meeting with his mother, worrying that the boy might be a "strange child." However, the mother was joyful rather than worried, telling the unbelieving teacher that Little John had experienced the cross.

The way to salvation is neither circumcision nor obedience to the law. It is only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Those saved by believing Jesus through faith confess as Paul did, "I died on cross with Jesus." Then it is not I who lives but Christ "in me." If I die, Christ in me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1

2023 JAN
수요일 • Wed

믿음이 온 후로는

Once the Faith Was Attain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묵상본문 **갈라디아서 3:1-14**

통독본문 **갈라디아서 3장**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t

Jesus was crucified to pay for our curse and redeemed our curse. By believing in Jesus who paid the ransom for us, our sins are forgiven, and we are redeemed. Once faith comes to us, we are no longer under the elementary law but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Galatians 3:1-14	Galatians 3

1 O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It was before your eyes that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2 Let me ask you only this: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3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4 Did you suffer so many things in vain--if indeed it was in vain?
5 Does he who supplies the Spirit to you and works miracles among you do so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6 just a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to him as righteousness"?
7 Know then that it is those of faith who are the sons of Abraham.
8 And the Scripture, foreseeing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preached the gospel beforehand to Abraham, saying, "In you shall all the nations be blessed."
9 So then, those who are of faith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10 For all who rely on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be everyone who does not abide by all thing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and do them."
11 Now it is evident that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for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12 But the law is not of faith, rather "The one who does them shall live by them."
13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anged on a tree"--
14 so that in Christ Jesus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so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d Spirit through fai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10절)
Paul said in Galatians 3:10,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are under a curse." Why do you think Paul said that?

믿음이 온 후로 당신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오히려 행함이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Once faith came to you, what kind of fruit of faith have you gained in your life? Rather, haven't the actions become the means to act superior, judgmental, and to be eager to condemn?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극복해야 할 보상 신앙
Restitutive Religion to Be Overcome

3장은 바울이 2장에서 밝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변론입니다. 변론의 근거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430년 후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보다 우선하며 이는 율법으로 폐기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듯이 모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는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몽학선생)"(갈 3:24)가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구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이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비쳐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들은 이런 위험성을 견지하고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에 따르는 보상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행함을 통해 복을 받고 행함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Galatians 3 expounds Paul's theology of redemption through faith already mentioned in Galatians 2. The basis of his explanation was Abraham. Paul asserted that the promise of God to Abraham supersedes the laws given to Moses and the Israelites at Mt. Sinai 430 years later and could not be abrogated by the law. Abraham believed God and he was credited as righteous. Gentiles would also be credited as righteous by faith and be redeemed.

However, Paul did not mention abrogation of the law. The law has its role. The law "leads us to Christ" (v. 24)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so its role is to guide. Observance of and actions pursuant to the law are not how we attain redemption, but the law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will of God and leads us to the way of faith.

We already know that we are justified and redeemed by faith. However, this may cause the misunderstanding that Christians who are redeemed do not have to do good or do not have to obey the law. Churches in Korea noticed this flaw a long time ago and began emphasizing actions together with faith and at the same time started talking about restitution according to actions. Actions are blessed and believers of active actions were considered more faithful than those who were less active. Our salvation cannot be attained by offerings, reading the Bible, praying, fasting, or serving others at church. However, by doing all these things, we may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God, become more intimate with Jesus, and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범의 연덕으로

12

2023 JAN
목요일 • Thu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Not a Slave But a Son

맥잡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묵상본문	통독본문
갈라디아서 4:1-11	갈라디아서 4장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Before we know Jesus, we are slaves under the law of the world. Once we believe Jesus, God sends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n the Spirit calls out, "Abba, Father."

♫ Take Me, Oh, My Father, Take Me

Meditation	Reading Plan
Galatians 4:1-11	Galatians 4

1 I mean that the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though he is the owner of everything,
2 but he is under guardians and managers until the date set by
his father.
3 In the same way we also, when we were children, were en-
slaved to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4 Bu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woman, born under the law,
5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6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7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8 Formerly, when you did not know God, you were enslaved
to those that by nature are not gods.
9 But now that you have come to know God, or rather to be
known by God, how can you turn back again to the weak and
worthless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whose slaves
you want to be once more?
10 You observe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11 I am afraid I may have labored over you in vai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
What happens to us when God sends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v. 6)

9절에 기록된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삽니까? 아들/딸로 삽니까?
Remembering Paul's warning in Galatians 4:9, look back on your life. Do you live as a slave? Or as a son/daughter?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스힐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직도 '종'으로 사십니까
Do You Still Live as a "Slave"?

4장은 3장에서 시작된 논증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랐을 때, 율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아 살던 '종'에서, 아들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이전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옛 세상의 지배 세력들에게 다시 종노릇 하는 유혹에 굴복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종'으로 삽니까?

Galatians 4 is the end of Paul's expounding that began in Chapter 3. Abraham was justified by faith. Those who believe are children of Abraham. When God called Abraham and when Abraham answered God's calling with faith, there was no law. Obedience to the law did not make them children of Abraham. Nonetheless, Paul said that an heir was not different from a slave while the heir was a child. Likewise, we were slaves when we were children under the law of the world. But God sent His Son who redeemed those under the law and we were justified to attain the right as sons and daughters. Not only that but God also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and allowed us to call God "Abba, Father." Now we are no longer slaves but sons and daughters and have become the heirs.

To become a Christian means to thoroughly change from your old self and be transformed into a completely different being. From a "slave" following the law of the world, to become a "child" of God unto whom the Spirit of His Son was poured. This means "my old self" died on the cross, and was born again as a Christian, that is, a new self.

However, we sometimes forget the special status and role of ourselves and surrender under the temptation of becoming slaves again to old worldly authorities. I hope we do not go back. We are the children of God. Do you want to live again as a "slave?" Or are you still living as a "sla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3

2023 JAN
금요일 • Fri

성령을 따라 행하라

Act According to the Spiri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은 성령을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 새454장(통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묵상본문 **갈라디아서 5:16-26** | 통독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Reading Insight

Jesus gave us freedom. We are also called for freedom. We are no longer slaves bound to the law. Free people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nail the greed of flesh on the cross, and are fruitful of the Spirit.

♫ More Like Jesus Would I Be

Meditation	Reading Plan
Galatians 5:16-26	Galatians 5

16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17 For the desires of the flesh a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the things you want to do.

18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sexual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20 idolatry, sorcery, enmity, strife, jealousy, fits of anger, rivalries, dissensions, divisions,

21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ings like these. I warn you, as I warned you befor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24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25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walk by the Spirit.

26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신앙의 영웅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23절)
The heroes of religion act according to the Spirit and are fruitful of the Spirit. What are the fruits of the Spirit? (vv. 22–23)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24절)
What do we need to do if we want t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v. 25) What do the people who belong to Christ Jesus do to live like that? (v. 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그리운 신앙의 영웅들
Longing for Religious Heroes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나는 자유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돌아가지 말기를 당부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까? 율법의 올무에 매여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초등 학문에 붙잡혀 내 지식을 내 스펙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청량한 음료처럼 마른 목을 시원하게 적셔 줄 답변을 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16절)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자기 또래의 영어도 유창하고 자기 눈에 잘나가는 청년들만 보였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매일매일을 보내야 했고 목숨을 끊을까도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 준 곳은 교회였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교회에 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한 집사님이 "아무개야 왔어? 고생했네. 밥은 먹었어?" 하며 반갑게 맞아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매번 갈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로 지친 자신을 버티게 해주신 그분이 있어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예전에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영웅이라 불리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그런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영웅들. 자신의 생활도 별나을 것이 없는데도 소리 없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던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영웅들의 영웅담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훈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Jesus gave us freedom but do I live in freedom and fully utilize the freedom given by our Lord? Do I still live as a slave? Though I urged you not to go back to the old self, are you still wavering under worldly temptation? Do you still judge and condemn others under the snare of the law? Do you still live boasting about your knowledge and resume under the spell of worldly standards? Paul gave us a clear answer that acts as fresh water to wet our thirsty throat like a refreshing cold drink.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v. 16).

This is a story of a local pastor. While attending a college in Korea, the pastor's family immigrated to the US. Unable to understand or speak English and unable to communicate, he worked every day to earn and save for college tuition. When he went to church, young people he encountered appeared to be fluent in English and well to do. He spent many days immersed in an inferiority complex and thought about suicide many times. But it was the church that kept him going. It was a pleasure just going to church after a hard day's work. Whenever he went to church, there was a Deacon who always greeted him with a smile, "Oh, welcome again. Had a hard day, right? Have you eaten?" and invited him to her house and fed him kalbi every time. He said that she was like a crutch for a man exhausted in the hard life of an immigrant and now he owed his existence to her. This was his testimony.

There were many of those Deacons at church in the old days. They may not want to be called heroes but there were many such heroes. Heroes of faith. Their own livelihood may not have been any better, but they helped those in need in silence, prayed in the background for church, and even did hard work with joy. Those are my heroes of faith. I hope and pray that our churches will become much warmer with stories of such heroes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14

2023 JAN
토요일 • Sat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Fulfill the Law of Chri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짐을 서로 져야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묵상본문	통독본문
갈라디아서 6:1-10	갈라디아서 6장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Reading Insight

People who act according to the Spirit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Those people who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fulfill the law of Christ. In order to fulfill the law of Christ, we must carry each other's burdens. Our faith journey requires community life together.

♬ Oh, to Be Like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Galatians 6:1-10	Galatians 6

1 Brothers,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in a spirit of gentleness. Keep watch on yourself, lest you too be tempted.

2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3 For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4 But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and then his reason to boast will be in himself alone and not in his neighbor.

5 For each will have to bear his own load.

6 One who is taught the word must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 one who teaches.

7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one sows, that will he also reap.

8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9 And let us not grow weary of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will reap, if we do not give up.

10 So then,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everyone, and especially to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8절)
What are the results of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and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v.8)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Have you attained redemption by having been justified by believing Jesus as your Lord? What is the fruit of your redemption?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Do Not Deceive Yourselves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믿고 의에 이르러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피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종된 상태로 되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성령을 따라 살 때, 믿음의 증거,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의 여부를 감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합니다. 짐을 서로 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속입니다. 속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으나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다툽니다.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바울의 권면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며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Christians are those who were redeemed having been justified by admitting and believing Jesus is the Lord. Paul asserted that the only possible way to attain redemption is "by faith." Paul also admonished those who were saved t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and not return to slavery. At the same time, when we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we will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as proof of faith. We can dare to judge the degree of our faith by looking at the fruit. It is not easy to keep our faith alone. Salvation is entirely a personal matter. But to keep the faith of those who were saved by faith needs faith community. That is why Paul admonished, "Carry each other's burdens." He also said, "Fulfill the law of Christ" by carrying each other's burdens. The law of Christ is love. It is the fruit of the Spirit.

But Paul warns in Galatians 6:3,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In churches nowadays there are many self-deceivers. They deceive themselves and others that they believe in Jesus. They deceive that they believe in Jesus and were saved. While in deceit, although they thought they believed and were saved by Jesus, no fruit can be produced. The law of Christ can not be fulfilled. Then they engage in bickering with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hey insist on "my way." Please do not take lightly the admonition of Paul in Galatians 6:7-9. What do you want to sow? Believers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and will reap fruits commensurate with their faith. Faithful people have powers because Jesus has already won the world.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5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큰 자유, 사랑의 종노릇

강학구 목사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PA)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죄, 율법,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를 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역이용하여 마음대로 율법을 어겨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자유를 육체(범죄)의 기회(발판)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발판)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율법,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셔놓고 또다시 자유가 없는 종이 돼라? 그런데 이 종노릇(사랑의 종노릇)이야말로 참 자유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는 아직 자유를 맛보지 못한 가짜 자유인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할 때 누리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것만큼 힘든 종노릇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노릇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억지로 한다면 자유일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품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하셔서 그 변화된 성품으로 이 어려운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사랑의 종노릇 하는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간절히.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 사탄도 포기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16

2023 JAN
월요일 • Mon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Christ Living in 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 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나의 약함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면 성도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묵상본문 **빌립보서 1:12-21**

통독본문 **빌립보서 1장**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Reading Insight

Even in my weakness, when Christ is proclaimed, the saints rejoice. A Christian lives with Jesus in him. Therefore, even if I die, if Christ is preached, it is also gain to die.

♫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Philippians 1:12-21	Philippians 1

12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13 so that it has become known throughout the whole imperial guard and to all the rest that my imprisonment is for Christ.

14 And most of the brothers, having become confident in the Lord by my imprisonment, are much more bold to speak the word without fear.

15 Some indeed preach Christ from envy and rivalry, but others from good will.

16 The latter do it out of love, knowing that I am put here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17 The former proclaim Christ out of rivalry, not sincerely but thinking to afflict me in my imprisonment.

18 What then? Only that in every way, whether in pretense or in truth, Christ is proclaimed, and in that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19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the help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20 as it is my eager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ot be at all ashamed, but that with full courage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honor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21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Why does Paul continue to rejoice? (v.18)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17절)
Paul is in prison. Nevertheless, he writes that what has happened to him has served to progress i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What happened? (vv. 12–1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It Is also Gain to Die

1863년 런던선교회로부터 중국선교사로 파송 받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64년 3월에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타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출타 중인 동안 아내는 유산을 하고 아내도 차가운 주검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충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런던선교회에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 해상 세관 통역으로 취직하여 일에 전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서 자행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 온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말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조선을 자신의 선교지로 정합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나눠주며 선교할 계획을 갖고 대동강을 따라 출항을 합니다. 하지만 배는 조선군에게 공격을 당하였고 좌초됩니다. 이 순간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 믿으세요"라며 소리치며 갖고 있던 성경을 군사들에게 던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물에 빠졌고 헤엄을 쳐서 뭍으로 나왔지만 박춘권에 의해 생포됩니다. 평양감사는 박춘권으로 하여금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토록 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박춘권에게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라며 성경이 들어있던 보따리를 받아달라며 내밀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실패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춘권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를 이어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뿌렸던 성경은 살아서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21절)

Missionary Thomas was sent as a missionary to China by the Missionaries of London in 1863. In March 1864, he left his pregnant wife alone and went on to minister to other regions. While away, his wife suffered a miscarriage, and his wife greeted him with a cold dead body. Shocked and resentful of God, he submitted a missionary resignation letter to the London Mission Society and got a job as a Chinese maritime customs interpreter, where he devoted himself to his work. Then he met Korean Christians who had fled to China to escape the persecution perpetrated in Korea. When Missionary Thomas heard that so many people in Korea were dying and shedding the blood of martyrdom because of their faith in Jesus, Missionary Thomas had a heart for Korea and decided to make Korea his mission destination. In 1866, Missionary Thomas had a missionary plan to enter Pyongyang aboard the General Sherman and hand out bibles and depart along the Daedong River. However, the ship was attacked by Korean soldiers and stranded. Even at this moment, Missionary Thomas shouted, "Believe in Jesus," and threw his bible towards the soldiers. Missionary Thomas fell into the water, swam and came onto the shore, but was captured by Park Chun-kwon. The Pyongyang Governor ordered Park to behead Missionary Thomas. Before he was beheaded, Missionary Thomas asked Park Chun-kwon as his last request to accept a bundle containing a bible. Missionary Thomas was beheaded and martyred on the banks of the Daedong River without even stepping on the land of Chosun.

To many, Missionary Thomas' mission seems to be a failure. However, God continued Missionary Thomas' mission through Park Chun-kwon. The bible, which Missionary Thomas sowe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death, survived and became the cornerstone upon which the Church of Chosun was built.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v. 21).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17

2023 JAN
화요일 • Tue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맥잡기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목숨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묵상본문 **빌립보서 2:12-18** | 통독본문 **빌립보서 2장**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The saved saint should strive to maintain salvation. We must live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and bea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en I do, even if I give my life, I can rejoice, and the community of faith rejoices with me.

♫ Straight is the Gate to Salvation

Meditation	Reading Plan
Philippians 2:12-18	Philippians 2

12 Therefore, my beloved, as you have always obeyed, so now, not only as in my presence but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13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14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questioning,

15 that you may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without blemish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twisted generation, among whom you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16 holding fast to the word of life, so that in the day of Christ I may be proud that I did not run in vain or labor in vain.

17 Even if I am to be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upon the sacrificial offering of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you all.

18 Likewise you also should be glad and rejoice with 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What must a Christian do to appear as light among the people in the world? (v. 15).

그리스도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하며 살다왔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6절)
Do you have anything to lift up on Christ's day, or Judgment Day? If God asks what have you been doing in the world, what will you say? (v. 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라
Proclaim the Joy of Salvation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의로도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죄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의 의를 위해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툴 시간과 에너지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나의 목숨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 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바울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Paul exhorts you to "obey always, and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Salvation is a one-off event of faith in Jesus. What we cannot obtain by our righteousness, our works, or our efforts is salvation. But Paul tells you to work out your salvation.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do it by our own effort. It means that a saved saint is to live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and bea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to the perfection of Christ so that they do not return to be a servant of sin.

Since it is God who works among the saints, we are told to do all things without resentment and fervor. Whenever people gather, judgment regarding right or wrong will happen among those people. The church is the same. It often happens that you risk your life over the slightest thing. When this happens, we have to reflect upon it. Even if it is God who works for all things, am I not fighting for my righteousness? We have to devote ourselves to the work of accomplishing our salvation and preaching the gospel with time and energy instead of quarreling with brothers and sisters of faith in the Church. On the Day of Judgment, should I not have something to lift up before the Lord. Like Paul, even if I lay down my life, I must have the faith to rejoice. I respect Paul in his faith for proclaiming his joy for the gospel of Christ preached by his own death, even in his imprisonment without knowing when he would be executed. Let us now proclaim to the world. "Rejoice. Rejoice with me."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8

2023 JAN
수요일 • Wed

가장 고상한 지식

The Most Noble Knowledg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참된 기쁨의 근거는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에도, 많이 배운 것에도, 많은 재물을 가진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 새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묵상본문 **빌립보서 3:1-9** | 통독본문 **빌립보서 3장**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Reading Insight

Saints rejoice in the Lord. The basis of true joy lies not in worldly pride, but in the Lord. In other words, our joy is not in our high positions, in how much we have learned, nor in having wealth. We regard all those things as harmful because the knowledge of Christ is the surpassing greatness.

♫ There is No Name So Sweet

Meditation	Reading Plan
Philippians 3:1-9	Philippians 3

1 Finally, my brothers,rej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is no trouble to me and is safe for you.

2 Look out for the dogs, look out for the evildoers, look out for those who mutilate the flesh.

3 For we are the circumcision,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and glory in Christ Jesus and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

4 though I myself have reason for confidence in the flesh also. If anyone else thinks he has reason for confidence in the flesh, I have more:

5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as to the law, a Pharisee;

6 as to zeal, a persecutor of the church; as to righteousness under the law, blameless.

7 But whatever gain I had, I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8 Indeed,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in order that I may gain Christ

9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come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from God that depends on fai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왜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할례파라고 합니까? (3절)
Why does Paul say that he and the Philippians are "the circumcision?" (v. 3)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자랑하는 해로 여길 것과 배설물로 여길 것이 있습니까? (8절)
Is there anything you consider to be harm you boast of and rubbish in order to gain Christ? (v.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어바인드림교회 (CA)
언약교회, 이상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The Knowledge of Jesus Is Excellency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언제 형장으로 불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또한 "기뻐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결코 수고롭지도 않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더욱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좋은 기쁨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이 쌓아올린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입니다. 4-6절에 걸쳐 바울은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쭉 늘어놓습니다.

바울도 흔한 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뿐더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Paul says, "Rejoice in the Lord." The reason he can rejoice in a Roman prison where he does not know when he will be called to execution is because Paul himself was confident that he was in the Lord. Our joy should also be joy in the Lord. It is the joy that comes from the fact that I am in the Lord and that the Lord is in me. Paul also says that he is never troubled to use the word "rejoice" over and over again. Rather, we see Paul who was more full of joy and blessing.

There is something that robs me of this joy. It is when I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but live trusting in the flesh. Trusting in the flesh is the pride of the world that you have built up. Throughout verses 4-6, Paul lists worldly things he could have boasted about.

Paul, in common parlance, was a man with an impressive resume. Such a man like him met the resurrected Jesus. Since then, he confesses that he considers all his things to be harmful and his knowledge of Jesus is the surpassing greatness. He abandons everything for Jesus' sake and considers it rubbish. He testifies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o obtain Jesus. Knowledge of Jesus is true excellence. We need to meet Jesus. Then there is nothing for us to boast about and no reason to be intimidated by the world. Like Jesus, who emptied himself and came in the form of a servant, if we humble ourselves and die on the cross, we gain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19

2023 JAN
목요일 • Thu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in the Lord

맥잡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성도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 새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묵상본문	통독본문
빌립보서 4:1-9	빌립보서 4장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Saints who are delighted in God's love must stand in the Lord. We should stand in the Lord and rejoice always. As we await the day the Lord will come, we should make it known to God in prayer, supplication, and thanksgiving. The God of peace guards our hearts and minds and is with us.

♫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Meditation	Reading Plan
Philippians 4:1-9	Philippians 4

1 Therefore, my brothers,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stand firm thus in the Lord, my beloved.

2 I entreat Euodia and I entreat Syntyche to agree in the Lord.

3 Yes, I ask you also, true companion, help these women, who have labored side by side with me in the gospel together with Clement and the rest of my fellow work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5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The Lord is at hand;

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8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jus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commendable, if there is any excellence, if there is anything worthy of praise, think about these things.

9 What you have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seen in me--practice these things,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빌립보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2절)
A quarrel broke out between the two female leaders of the Philippian Church, Euodia and Syntyche. What does Paul exhort them to do? (v. 2)

바울이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Why did Paul tell you to rejoice and let all know your tolerance? (v. 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면

If the Day of the Lord Is Near,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누군가 불러준다면 기분 좋겠지요?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라면, 참으로 기쁘겠지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교역자에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지, 재물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고 한마음을 품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뜻도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한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기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Would it be nice if someone referred to you as, "My beloved and lovely brethren" or "My joy and crown, beloved?" If that person were our Lord, what a joy it would be, right? Do you think you are being called this way by the pastors of your church? Before answering the question, I invite you to check where you stand now. Whether I am standing in the Lord, or whether I am still standing in the place of worldly success, or in a place for riches. Paul exhorts me to "stand in the Lord."

Paul also s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for I say again, rejoice." We are told not to quarrel, but to rejoice with one heart because the Lord is near. This means that the Lord is always by our side, and it also means that the day of His Second Coming is near. When the Lord is always by our side, it is natural to rejoice. It's natural to have the same mind. But can you rejoice when the Lord's Day is near? Now that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t is natural to have one heart. But can we rejoice? The more you like the world, the harder it is to rejoice. All we have to do is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all things, by prayer and supplication, by thanksgiving, we present our requests to God."

The joy of the Lord cannot be compared with the joy of the world. Rejoice in the Lord. The God of peace is with you.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0

2023 JAN
금요일 • Fri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Servant
of the Gospel
and Servant
of the Churc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묵상본문 **골로새서 1:21-29** | 통독본문 **골로새서 1장**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Reading Insight

When we fully receive the gospel of Jesus, we find God's deep grace. We become at peace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who atoned himself to reconcile us with God. This delights God. To delight God, we have to be workers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Meditation	Reading Plan
Colossians 1:21-29	Colossians 1

21 And you, who once were alienated and hostile in mind, doing evil deeds,

22 he has now reconciled in his body of flesh by his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holy and blameless and above reproach before him,

23 if indeed you continue in the faith, stable and steadfast, not shifting from the hope of the gospel that you heard, which has been proclaimed in all creation under heaven, and of which I, Paul, became a minister.

24 Now I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r sake, and in my flesh I am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that is, the church,

25 of which I becam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stewardship from God that was given to me for you, to make the word of God fully known,

26 the mystery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now revealed to his saints.

27 To them God chose to make known how great among the Gentiles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28 Him we proclaim, warning everyone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mature in Christ.

29 For this I toil,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that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26-27절)
Paul said,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is now disclosed to the saints" and to the Gentiles. What is this mystery? (vv. 26–27)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29절)
As we proclaim Jesus to all people, we can also present them to be fully mature in Christ. How can we accomplish that task? (vv. 28–2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Stand Firm on the Foundation of Faith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타인들의 칭송을 받으라고 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는 사단의 꼼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22절).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23절).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역할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28절).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입니다(25절).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Often, Satan tempts people to be praised by doing good work. Doing good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good works do not lead to salvation. This is the lie that comes from Satan. "God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and do not move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vv. 22–23). He is the one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v. 28). This means we are bearers of the gospel who can be used to lead people to be fully mature in Christ. Christians are to carry the gospel everywhere.

Not just that, we are to be the servants of the church. God commissioned us to do this. What is the purpose of God making us the church's servants? It is to fulfill God's Word. In order to do so, God trains and equips us in faith as the Lord's servants and the one who fulfills the glory of God is our Christ Jesus.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21

2023 JAN
토요일 • Sat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Jesus Triumphed on the Cro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마음에 위안을 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믿음에 굽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합니다.

♫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묵상본문 **골로새서 2:6-15** | 통독본문 **골로새서 2장**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Reading Insight

On the cross, Jesus won the world. Christians have accepted Jesus as their Lord. In the community of Christ, we do our best to give comfort to each other, and be united in love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mystery of God. We must also stand firm in the faith and overflow with thanksgiving.

♫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Meditation	Reading Plan
Colossians 2:6-15	Colossians 2

6 Therefore,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7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just
as you were taught, abounding in thanksgiving.

8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according to human tradition, according to the
elemental spirits of the world, and not according to Christ.

9 For in him the whol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

10 and you have been filled in him, who is the head of all rule
and authority.

11 In him also you were circumcised with a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by putting off the body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12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with him through faith in the powerful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13 And you,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the uncir-
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espasses,

14 by canceling the record of debt that stood against us with
its legal demands. This he set aside, nailing it to the cross.

15 He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and put them to
open shame, by triumphing over them in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11절) 그리스도의 할례의 증거가 나에게 있습니까?
What does the circumcision of Christ mean? Do you have any evidence of the circumcision of Christ? (v.11)

바울은 세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세례는 무엇입니까? (12절)
Paul explains baptism. What's Paul's definition of baptism? (v.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Stand Firm in the Faith and Overflow with Thanksgiving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13-14절).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11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관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고 그러한 것들에 휩쓸려 마음을 빼앗기고 행동한다면(8절)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날마다 입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이생의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굳게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7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and in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ave us all our sins, having canceled the charge of our legal indebtedness, which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he has taken it away, nailing it to the cross (vv. 13-14). We are circumcised in Jesus who removes our sinful nature.

We are free in Christ Jesus. We are free from the bondage of carnal greed, human principles, and regulations. It is because Jesus triumphed over them on the cross. If you are still under human tradition and basic principles and are captives of the world, you may want to re-evaluate your Christian faith.

The Lord of your life should be Jesus Christ. Let us proclaim that every day without fail. Jesus triumphed over the world on the cross. The pleasures of the world are only temporary and will disappear. They only lead us to destruction. As people who won the battle through Christ, we have to stand firm in faith and live a life of thanksgiving. Satan hates those who give thanks to God.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2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빌립보교회"

김만식 목사 (시애틀늘푸른교회, WA)

빌립보서는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감사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대필자)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라 붙였다고 합니다(B.C. 358년경).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도시를 증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주 시켰습니다. 주전 167년 헬라가 로마에게 넘어간 후 빌립보는 로마의 한 도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째 도시 빌립보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도시로 지정되어 세금이 면제되고 거주민에게는 준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점치며 돈벌이를 하던 여종의 악귀를 쫓아냈을 때 그 여종의 주인이 행정관들 앞에서 "우리 로마인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그 주인은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통행로에 위치하여 상업이 발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아디라성 출신 루디아라는 여성은 자주색 옷감을 빌립보에 가져다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저와 그 집이 예수 믿고 다 침례 받은 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청해 머물게 해주었습니다(행 16:14 이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팀 일행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였습니

다(행 16장). 바울은 1차 여행 때 전도한 지역들을 둘러보면서 2차 전도활동을 시작했습니다(A.D. 51년경). 디모데는 이때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 일행은 길가에서 만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과 함께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행 16:16 이하). 귀신들린 여종은 점을 치며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줬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치안관에게 데리고 가서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로운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이 일로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바울 일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 놀라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소리쳐 제지한 후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앞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여러분도 전도에 힘쓴 바울과 믿고 헌신한 루디아와 간수를 본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23

2023 JAN
월요일 • Mon

위의 것을 찾으라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위의 것을 찾으라(1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모두 벗어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 새92장(통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묵상본문	통독본문
골로새서 3:1-10	골로새서 3장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Reading Insight

Seek things above (v. 2). Put to death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whatever grievances you may have against one another.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 There's One Above All Earthly Friends

Meditation	Reading Plan
Colossians 3:1-10	Colossians 3

1 If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2 Set your minds on things that are above, not on things that
are on earth.

3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4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5 Put to death therefore what is earthly in you:sexual im-
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6 On account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7 In these you too once walked, when you were living in
them.

8 But now you must put them all away: anger, wrath, malice,
slander, and obscene talk from your mouth.

9 Do not lie to one another, seeing that you have put off the
old self with its practices

10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its creato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2–17절)
How do the "people who seek above" live? (vv. 12–17)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10절)
Who are the people who have taken off the old self and put on the new self? (v. 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Looking Good Doesn't Mean It's Good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2절)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의 부끄러운 말 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내버려 둔 결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함,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함,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의 악한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그들은 그런 악한 행실을 하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할까?', '왜 악한 이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를 짓고 나쁜 행실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지금은 그들이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이며, 지옥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툼이 없이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Paul exhorts in verse 2 to set 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The earthly things a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greed and idolatry. Romans 1:24 says, "God gave them over in the desires of their hearts to impurity, to dishonor their bodies among themselves."

Verse 28 says, "And just as they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God, God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to do what should not be done." When they were living with depraved minds, men committed shameless acts with men, they were filled with envy, murder, strife, deceit, hostility, and their actions were gossipy, slanderous, hateful towards God, insolent, arrogant, boastful, contriving of all sorts of evil, disobedient to parents, senseless, covenant-breaking, heartless, and ruthless.

Although they full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deserve to die, they not only do them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Nothing has changed. You may ask why is the world filled with evil, why do the evil ones live well or why isn't God punishing those evil committing so-called Christians? It's because God has given them over to their depraved minds. Is that really helpful for them? They may temporarily find pleasure, but their end is death and the lake of fire. Seek things from above.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Jesus. Be strengthened through Jesus and give thanks to God.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이진식(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은기쁨의 연덕으로

24

2023 JAN
화요일 • Tue

바울의 부탁

Paul's Requests

맥잡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새505장(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골로새서 4:2-6	골로새서 4장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We are created to praise and honor God. It is Christians' duty to spread the gospel until the whole world praises and glorifies God. Before witnessing, we should pray and we are to live a Christ-like life. To fulfill that commission, we have to first seek God's grace. Grace be with you!

♫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Meditation	Reading Plan
Colossians 4:2-6	Colossians 4

2 Continue steadfastly in prayer, being watchful in it with thanksgiving.

3 At the same time, pray also for us, that God may open to us a door for the word, to declare the mystery of Christ, on account of which I am in prison--

4 that I may make it clear, which is how I ought to speak.

5 Walk in wisdom toward outsiders,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6 Let your speech always be gracious,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you ought to answer each pers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 (5-6절)
How did Paul teach we should witness to unbelievers? (vv. 5-6)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Now, what should we pray for? What does today's text teach us? (v. 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Open the Door for Us to Evangelize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온 유럽의 종교가 되었을 때보다 오늘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20세기 초 대선교의 시대를 지나 전세계의 기독교인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그 전성기가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보다는 지금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초기 기독교 태동의 때보다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 우려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간교한 마귀에 간계에 빠진 세상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의 권면처럼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하기 전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은 먼저 우리를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6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책임을 가집니다.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I was wondering if we have more Christians now than during the Roman empire when the church declared Christianity to be their official religion thus becoming the religion in Europe. We may have surpassed the peak of Christianit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we count the total number of Christians worldwide.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in the near future, the number of Christians will decrease. We cannot pause our witnessing.

There is a saying "we love and that's why we witness."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because He loves the world and we are to replicate God's love by spreading the gospel of Jesus. Therefore, as Paul was exhorting, we are to pray first and always stay awake with thanksgiving. We ought to seek to witness boldly to share the mystery of our faith. Before we go out to share the gospel we have to live a true Christian life. Our actions speak louder.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v. 6).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5

2023 JAN
수요일 • Wed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Thessalonian Church Became the Example of Fai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 새490장(통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묵상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6-10** | 통독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
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
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
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
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
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Reading Insight

Apostle Paul complimented the Thessalonian church who set the example of keeping their faith during difficult challenges and oppositions which he heard from Timothy in his updates. Apostle Paul had to leave the Thessalonian church, since the persecution became severe.

♫ There's a Dream that I Dream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ssalonians 1:6-10	1 Thessalonians 1

6 And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for you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the joy of the Holy Spirit,

7 so that you became an example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in Achaia.

8 For not only has the word of the Lord sounded forth from you in Macedonia and Achaia, but your faith in God has gone forth everywhere, so that we need not say anything.

9 For they themselves report concerning us the kind of reception we had among you, and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10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지역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7-8절)
How did the Thessalonian church influence other regions? (vv. 7–8)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9-10절)
What are the topics and contents of discussions about the Thessalonian church? (vv. 9–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Becoming a Christian

데살로니가인들의 문화, 사회, 경제생활은 전반적으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과 배척을 각오해야 하며, 이전 생활과의 철저한 단절, 경제적 위기를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눅 14:26)"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헌신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회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환란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날에 이를 구원이었습니다(9-10절). 그들은 이를 위해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환란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뵈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culture, society and economy of the Thessalonian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pagan god worship. Becoming a Christian in Thessalonica was hard. You expected to be totally isolated from others and even persecuted. You also expected to be cut off from your previous life and to experience economic crisis. Jesus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 yes, even their own life –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Luke 14:26). Becoming a disciple of Jesus Christ requires self-denial and complete dedication.

The converted Christians in Thessalonica chose faith in Jesus and claime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During numerous difficulties, Thessalonians kept their faith and others in Macedonia, Achaia and other regions heard about the deep faith of the Thessalonians. They believed that they would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who will rescue them from the coming wrath. They turned away from idols. Likewise, we also need to make bold decisions of faith. As Christians, we ought to choose faith even in the face of economical disadvantages, non-recognition from the world and isolation from others. The tendency of the world is getting worse in its division. We are called to keep our faith.

In the journey of faith, we can stay bold and confident with hope that we can see Jesus Christ face to face in heaven. This hope makes us resilient in any difficult challeng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26

2023 JAN
목요일 • Thu

바울의 사역

The Ministry of Paul

맥잡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백과 진정성을 변호하며 그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합니다.

♬ 새323장(통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묵상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1-8**

통독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
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
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
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
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
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
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The Jews criticized and blamed Apostle Paul after he left Thessalonica. Paul shared his innocence and sincerity with them and explained his ministry. Paul hoped to visit the Thessalonian church again someday.

♫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ssalonians 2:1-8	1 Thessalonians 2

1 For you yourselves know, brothers, that our coming to you was not in vain.

2 But though we had already suffered and been shamefully treated at Philippi, as you know, we had boldness in our God to declare to you the gospel of God in the midst of much conflict.

3 For our appeal does not spring from error or impurity or any attempt to deceive,

4 but just as we have be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so we speak, not to please man, but to please God who tests our hearts.

5 For we never came with words of flattery, as you know, nor with a pretext for greed--God is witness.

6 Nor did we seek glory from people, whether from you or from others, though we could have made demands as apostles of Christ.

7 But we were gentle among you, like a nursing mother taking care of her own children.

8 So, being affectionately desirous of you, we were ready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also our own selves, because you had become very dear to u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은 무엇입니까?(2절, 행 16장)
What suffering and disgrace did Apostle Paul experience in Philippi? (v. 2, Acts 16)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5절)
What mindset should people who share the gospel have? (v. 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Please God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일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야반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뢰아로 도망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와 비난하며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의 말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헛것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 되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성을 아시기에 당당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자기과시나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르게 믿고 부끄럼 없이 행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주일을 지키고, 속회로 모이고, 성경공부에 참여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충성되이 전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After encountering Jesus, Paul's life was a continuity of suffering and challenges. He had to leave Thessalonica secretly in the middle of night. Even when he fled to Berea and shared the gospel, the Jews in Thessalonica chased after Paul and interrupted his ministry. Paul wrote a letter when he was moving from Athens to Corinth saying that it was not in vain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in Thessalonica.

For Paul, the sole purpose of sharing the gospel was to please God. If his purpose was to please people or seek glory from them, his whole message would have turned out to be cunning or false. If Paul was flattering and claiming his authority with hidden greed, the gospel he shared would have been in vain. However, Apostle Paul was claimed by God as a righteous one and sent by God to share the gospel. Paul was never ashamed of being an apostle nor afraid of his call as an apostle of Jesus Christ. Paul was confident in revealing his call because he knows that God confirmed his sincere response to his call. It was not that Paul was arrogant or delusional. He was confident in the gospel because he believed in Jesus wholly and lived his life according to the gospel.

In our journey of faith when we get together in church, keep the sabbath, gather in small groups and bible studies, let us remember that our main purpose is to please God. If we have other purposes, then everything is in vain. Are we, as a church and family, pleasing God by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faithful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7

2023 JAN
금요일 • Fri

디모데가 전한 소식

The News from Timothy

맥잡기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길 원했던 바울은 여건이 허락치 않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 들은 교회의 소식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묵상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1-8** | 통독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Paul sent Timothy instead when he was not able to return Thessalonica. Paul was thankful for the updated news of the Thessalonian church through Timothy and he prayed for the church.

♬ Living for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ssalonians 3:1-8	1 Thessalonians 3

1 Therefore when we could bear it no longer, we were willing to be left behind at Athens alone,

2 and we sent Timothy, our brother and God's coworker in the gospel of Christ, to establish and exhort you in your faith,

3 that no one be moved by these afflictions. For you yourselves know that we are destined for this.

4 For when we were with you, we kept telling you beforehand that we were to suffer affliction, just as it has come to pass, and just as you know.

5 For this reason, when I could bear it no longer, I sent to learn about your faith, for fear that somehow the tempter had tempted you and our labor would be in vain.

6 But now that Timothy has come to us from you, and has brought us the good news of your faith and love and reported that you always remember us kindly and long to see us, as we long to see you--

7 for this reason, brothers, in all our distress and affliction we have been comforted about you through your faith.

8 For now we live, if you are standing fast in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2절)
Who is Timothy? (v. 2)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5절)
Why did Paul send Timothy to Thessalonica? (v. 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Now, Live!

강화의 홍의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날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각기 집안은 다르지만 한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으니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바꾸자"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라는 뜻의 일(一) 자를 돌림자로 정한 후, '믿을 신(信), 사랑 애(愛),능력 '능'(能), 은혜 '은'(恩), 거룩할 '성'(聖)' 같은 글자들을 주머니에 넣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름들이 신일, 은일, 애일, 능일, 성일 등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며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환란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통해 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바울 일행을 위로했습니다.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환란이 멈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만으로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8절)라는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의 돌림자를 써서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를 드러내기 원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기쁜 소식을 전했던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This is a story from Hong-Ui town in Gwanhwa, Korea. The people in Hong-Ui began to receive the gospel. One day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baptized. On that day, they said to each other that although they had different last names, they have now become one family in God, so they decided to change their first names with the common ending "Il" which means "one". Their new baptized names all ended with "Il" and the other syllables were words like "ae" (love), "Sung" (holy), "neung" (power), "shin" (faith), and "eun" (grace) which were drawn at random. This is why in the early church history of Korea, there were many names like Shin-il, Eun-il, Ae-il, Nueng-il and Sung-il.

When Paul sent Timothy to Thessalonica, he hoped that Timothy would stay strong in his faith even with all the difficult challenges he would face there. It was not only the Thessalonian church that had gone through difficult times. Paul and his group also constantly experienced poverty and difficulties. When Paul and his group heard Timothy's updated news of the Thessalonian church that were full of love, faith and joy, they were comforted. Not because their poverty and other difficulties were taken care of, but they were comforted by the news that the people of faith kept their trust in God even in the face of all challenges. How precious it is to hear Paul's confession in verse 8, "For now we really live, since you are standing firm in the Lord."

Like our ancestors of faith who adopted their new names, which all had the same ending to reveal the beauty of the Christian community's oneness, and the Thessalonian church who keep their faith even in the face of difficulties, I invite us to become a tight community of faith who can comfort and encourage each other. Let us stand firm and stay flawless with our continuous prayers for each other until Jesus Christ returns.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송기쁨의 연덕으로

28

2023 JAN
토요일 • Sat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Stay Awak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때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영광된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 새176장(통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묵상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5:1-11

통독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4-5장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Reading Insight

The Christians in Thessalonica were concerned about Jesus' second coming. Paul said that those who stay awake do not need to be afraid of Jesus' second coming since they would be with Jesus on the throne of glory even though no one knows the time. Therefore, we have to stay awake, love each other, do good, and keep ourselves holy and set apart every day.

♫ When Jesus Comes to Reward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ssalonians 5:1-11	1 Thessalonians 4-5

1 Now concerning the times and the seasons, brothers,you have no need to have anything written to you.

2 For you yourselves are fully aware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3 While people are saying, "There is peace and security," then sudden destruction will come upon them as labor pains come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will not escape.

4 But you are not in darkness, brothers, for that day to surprise you like a thief.

5 For you are all children of light, children of the day. We are not of the night or of the darkness.

6 So then let us not sleep, as others do, but let us keep awake and be sober.

7 For those who sleep, sleep at night, and those who get drunk, are drunk at night.

8 But since we belong to the day, let us be sober, having put on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 and for a helmet the hope of salvation.

9 For God has not destined us for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0 who died for us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with him.

11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one another up, just as you are do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낮에 속한 자들이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8절)
What are the things that those who belong to the day must have? (v.8)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Why do we have to be set apart from the world? (v. 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Be Prepared and Stay Awake

축구 경기를 보다가 상대방의 빠른 역습으로 우리 편이 실점을 하면, "골키퍼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구에는 루킹삼진(looking strike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날아오는 공을 치지 못해 아웃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망이도 휘둘러 보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아웃을 당하니 실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면 골키퍼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경기에 집중해야 하며, 타자는 반드시 공의 방향과 속도를 읽고 정확한 순간에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한 순간을 위해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제국이 제공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1절)"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6절)" 합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안, 공포, 혼란, 무질서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때론 로마 제국처럼 아무 일도 없으니 괜찮다라는 안도가 우리를 잠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여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Watching a soccer game, if our team concedes a goal due to the opponent's quick counterattack, we say "The goalkeeper should stay awake!" In baseball, there is a phrase, "looking strikeout" which means a player gets three strikes by just looking at the pitched balls without swinging at them. It is a derogatory expression for a player who did not even swing his bat to hit the balls. If you want to win a soccer game, the goalkeeper must stay awake and pay attention to the game. In baseball, a player must learn to read the speed and the angle of the ball and to measure the right time to hit the balls. In order to obtain these skills, athletes must train and practice every day.

Paul invited us to be prepared for the last days and stay awake. Thessalonica was under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Roman empire. Thessalonian Christians were concerned about the immediate time of Jesus' return and could not focus on their daily routines. Paul response to this attitude, "About times and dates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for you know very well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v. 1–2). The day of the Lord will be the day of glory for the people who stay awake but for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darkness, this will be the day of judgment. We must "not be like others, who are asleep, but let us be awake and sober" (v. 6).

We do not live in a time of persecution like the Thessalonica church, but we still experience the attack from anxiety, fear, chaos, and lawlessness. Sometimes the complacency of thinking nothing bad will happen to us makes us fall asleep like the Roman Empire did to Thessalonica. However, the children of God who belong to the daylight need to be prepared for the day of the Lord which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by arming ourselves with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 and the helmet of hope for salv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9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30

2023 JAN
월요일 • Mon

견디라! 미혹되지 말라!

Persevere!
Don't Be Tempt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은 패배자라고 미혹합니다.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야 합니다.

♬ 새337장(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묵상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3-12**

통독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2장**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t

Just like the cross looks foolish to the Jews and the pagans, it looks foolish for the unbelievers to see Christians go through hard times. The world tempts us to deny the existence of God and to believe Jesus was a failure. We better stand firm and strong with our faith. May we stay strong with good works and words.

♫ I Must Tell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2 Thessalonians 1:3-12	2 Thessalonians 1-2

3 We ought always to give thanks to God for you, brothers,
as is right,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abundantly, and the
love of every one of you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4 Therefore we ourselves boast about you in the churches of
God for your steadfastness and faith in all your persecutions
and in the afflictions that you are enduring.

5 This is evidence of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that you
may be consider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also suffering--

6 since indeed God considers it just to repay with affliction
those who afflict you,

7 and to grant relief to you who are afflicted as well as to
us,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8 in flaming fire, inflicting vengeance on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on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9 They will suffer the punishment of eternal destruction,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might,

10 when he comes on that day to be glorified in his saints, and
to be marveled at among all who have believed, because our
testimony to you was believed.

11 To this end we always pray for you, that our God may
make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may fulfill every resolve
for good and every work of faith by his power,

12 so 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10절)
What will happen when Jesus Christ returns? (vv. 8-10)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은 무슨 이유에서 라고 말합니까? (11-12절)
Why did Paul pray for the Christians in Thessalonica? (vv. 11-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The Sign of God's Righteous Judgment

신명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신 28:6)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립니다. 이는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 면접 자리에서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면접장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에 그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자꾸 회사에서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도 해 봤지만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견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이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아울러,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천국으로 향하는 표가 됩니다. 4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견딘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랑이 됩니다. 견딥시다.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The author of Deuteronomy said if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we will "be blessed when we go out and come in (Deut 28:6)". They are the words of truth. If we heed the words of God, we will receive the blessing which God promised for us. This is the privilege of believers. However, if we come to church and believe in Jesus in order to receive blessings, this is a wrong attitude. For there are significant adversities and challenges from following Jesus.

There was a young man who asked during his job interview whether he would have to work on Sundays. The interviewer said he did not have to. He decided to take this job since he could attend Sunday worship. However, as time went by, the company kept asking him to come to work on Sunday. This young man finally decided to quit this job after spending some time praying and discerning. For him, attending Sunday worship (keeping the Sabbath) was the priority.

Apostle Paul said that persevering through suffering is a sign of God's righteous judgment. God comforted His people who persevered through hardship. In addition, God pays back those who persecute Christians and sends the final judgment of "eternal perishment" to those who are disobedient to God and ignorant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 the day of judgment, the sign of God's righteous judgment will be the sign to ascend to heaven. According to verse 4, the ones who persevere hardships are the pride of God's church. Let us persevere and sing the hymns of victory. May we pray for the members of each church who go through hardships due to the pandemic.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은기범의 연덕으로

31

2023 JAN
화요일 • Tue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Don't Be Discouraged When You Do Go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게으름으로 인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 새390장(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묵상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6-15**

통독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Reading Insight

Paul asked others to "pray for him and his group." This is eventually for the believers at large. Paul's heart was filled with thoughts of other believers who would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stay in the glory of Christ. Also Christians should be careful of being lazy. We should also not be discouraged when we are doing good.

♫ He Leadeth Me: O Blessed Thought

Meditation	Reading Plan
2 Thessalonians 3:6-15	2 Thessalonians 3

6 Now we command you, broth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ou keep away from any brother who is walking in idleness and not in accord with the tradition that you received from us.

7 For you yourselves know how you ought to imitate us, because we were not idle when we were with you,

8 nor did we eat anyone's bread without paying for it, but with toil and labor we worked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9 It was not because we do not have that right, but to give you in ourselves an example to imitate.

10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would give you this command: If anyone is not willing to work, let him not eat.

11 For we hear that some among you walk in idleness, not busy at work, but busybodies.

12 Now such persons we command and encourage in the Lord Jesus Christ to do their work quietly and to earn their own living.

13 As for you, brothers, do not grow weary in doing good.

14 If anyone does not obey what we say in this letter, take note of that person, and have nothing to do with him, that he may be ashamed.

15 Do not regard him as an enemy, but warn him as a bro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왜 입니까? (8절)
anything without paying and to work day and night and laboring and toiling'? (v. 8)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라고 합니까? (12절)
Why did Paul say do not eat What would you command and urge people who are lazy, do not work, and make others take care of them?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Let Us Not Be Lazy in God's Work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 일하지 않음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강하게 게으름에 대해 질책하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앉은 자리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하여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예배 후 친교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가 만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일만 하고 누군가는 먹기만 하는 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허물이 보여도, 믿음이 연약하여 일만 만들어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Paul warned Thessalonica Christians that they should be careful about being lazy. Laziness according to Paul is eating without working, being a burden to others by not working, and creating works but not really maintaining. Paul said in a strong tone that one who does not work should not eat. There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in verse 11, "We hear that some among you are idle and disruptive.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 There are people who do not clean after them after having worship service. There are people who leave right after worship service and do not even look around to pick things up. If you do not clean up after yourself, someone must clean up and arrange the sanctuary after you. It is the same case with fellowship time.

Apostle Paul asked us to not be discouraged when we do good works. Even when we take care of things which lazy people started but did not finish, we are called to do good and not be discouraged. There are disagreements since some people are worker bees and others just eat. Even though we see the faults of others who lack faith, and make more work, let us not regard them as enemies but command and urge them to love like sisters and brothers. Let us never be discouraged when we do good works. We can serve more and love more. Most of all, let us not be lazy in God's work.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소그룹 교재

2023

01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새317장(통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28장(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433장(통46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여는 질문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신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서문(1:1-2)에 이어 긴 찬송(1:3-14)과 기도(1:15-23)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안부와 문안을 전한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3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신령한 복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우리 신분의 변화이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4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도 그들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출 19:6).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거룩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6, 12, 14절).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찬송을 받기 위함(사 43:21)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들(2절)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엡 2:3)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었으며 성령으로 확증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삶 속으로

• 구원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 삶에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에베소서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저거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와 나눔

교회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왜 그 찬양을 좋아하나요?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600장(통242장) 교회의 참 된 터는
새208장(통246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릴 사용하소서

여는 질문

코비드 팬데믹으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한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합니다. 남편을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또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교회에 비유합니다. 이 본문을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으로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이런 구닥다리 같은 말을 하냐고 반기를 들 아내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허투로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도 성경 말씀대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곧 역사를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 말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제재가 풀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람 많은 식당에 가 밥은 먹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원 전철, 만원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가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당에는, 일 터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는가 봅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는 남편은 가정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아내가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난 음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 바울은 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까?(26–27절)

삶 속으로

-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암송 구절 | 에베소서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와 나눔

ㅇㅇ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새303장(통4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새456장(통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나 주의 믿음 갖고

여는 질문

살다보면 크고 작은 마음에 난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치유된 상처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도 함께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지가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미 1장에서 묵상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에 이른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11절에서 다시 한 번 바울의 긴박함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문장에서 엿보입니다.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보이라고 큰 글자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질고를 겪었습니다. 눈도 침침하여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도 쉽지 않았을거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야만 했습니다. '큰 글자'로 간절함을 담아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에, 진리에 서기를 바라며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15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이 올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는 그리스도인을 규정하지 못하며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23, 18)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과 능력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14절)이 없습니다.
실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기에 바빠 보입니다. '내가'복음이 되어 '나'만 증거하고 '내' 주장만 하기에 바빠 보입니다. 신년주일에 떡국을 끓이면서 떡만 넣고 끓이는지 만두를 넣고 끓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걸고 싸웁니다. 내 의견대로 끓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식탁에 앉아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느라 혈안입니다. 조금만 자신과 의견이 다른 말을 꺼내면 금새 목에 핏대를 세우고 목청을 높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체기 나지 않은 과일 고르고, 일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는 복음이 담을 넘기가 힘듭니다. 바울처럼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14절)

삶 속으로

•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암송 구절 | 갈라디아서 6: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녀와 나눔

무엇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니?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면 좋아하실까? 운동을 잘하면 좋아하실까? 주일에 공부하느라 운동하느라 예배드리지 못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446장(통500장) 주 음성 외에는
주님 한 분 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는 질문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출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재벌가에 태어나는 것, 아니면 매일 술에 쩔어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구타하는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에 태어나는 것,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후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벌가에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리 투덜거려봤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괜히 마음만 허해집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출생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 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자신의 출생과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을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사장직을 내 던지고, 박사학위 내 던지고, 국회의원직 내 던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떠나,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길에서 떠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모진 질고와 풍파를 겪으면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은 처절한 경제적 궁핍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궁핍이 아니라 주어진 궁핍입니

다. 풍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이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인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궁핍과 풍부입니다. 이로부터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만족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 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우리 자신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의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족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 여러분의 자족은 '자족(Self-sufficient)'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God-sufficient)'입니까? (11절)

삶 속으로

- 궁핍할 때 나는 어떠했습니까? 풍부할 때 나는 어떠했습니까?

암송 구절 |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녀와 나눔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니? 그걸 가지면 행복할까? 그럼 그게 지금 없어서 불편한 점은 뭐가 있을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새449장(통377장)예수 따라가며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179장(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여는 질문

나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본문 이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머물러야 했고, 급히 도망쳐 나와야 했던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으나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3절)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불태웠고, 마술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마술 책들을 모아 불살랐습니다(행 19).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솝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마구잡이로 뒤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없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야손과 믿는 자들을 읍장에게 고소했습니다. 결국 야손은 많은 보석금을 물어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은 그리

스도와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수고를 친히 감당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더욱 단단히 지켜낼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편지의 후반부나,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이는 예수(10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며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말씀 속으로

•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9–10절)

삶 속으로

• 나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 내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납니까?

암송 구절 | 데살로니가전서 1장 6–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녀와 나눔

커피필터를 물에 적신 후,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수성펜(Washable marker)으로 점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The Divine Blessing from Heaven

Lord, Take My All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Nearer, Still Nearer

Opening Discussion

What blessings has God given to our churches and families over the past yea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Unlike Paul's other epistles, Ephesians begins with a long hymn (1:3–14) and prayer (1:15–23) followed by a preface (1:1–2). Paul, who delivered greetings to the churches in Ephesus, praises the redemptive work of the Triune God. Paul refers to this salvation as "every spiritual blessing of heaven" (v. 3). The spiritual blessing that God wants to give us is to make us God's children in Christ. We must remember that the blessing that God has granted us is a change in our identity, not the abundance of our possessions.

Why has God given us spiritual blessings? The first reason is to be holy and blameless (v. 4). Paul says in 1 Corinthians 1:8, "The Lord will strengthen you to the end as one who has nothing to rebuke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Colossians 1:22 also says, "Now that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God saved Israel from Egypt so that they might become a holy people, a nation of priests (Exod 19:6). In the wilderness, Israel had to be trained thoroughly for holiness. Even for people who have been saved by the blood of Christ, the holy life is not an option.

The second reason is to praise the glory of God's grace (vv. 6, 12, 14). Paul, who wrote this epistle, is imprisoned in a Roman prison. Nevertheless, he exhorts us to praise the grace that has saved us and encourages all the people who read this letter to praise the abundant blessings of God. God's purpose in creating man was also to receive praise (Isa

43:21). We are faithful people in Christ Jesus (v. 2). We who do not deserve to be saved (Eph 2:3)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Christ in God's plan sinc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have become children of God, confirmed by the Holy Spirit. The existence of my life in the world should be to glorify God and I should praise His grace. We must live a holy life that is not ashamed.

Into the Word

• What are the spiritual blessings of heaven that have been given to us?

• What are the conditions for salvation?

Into our life

• Is there always joy and gratitude in our lives for the saved?

Memory Verse | Ephesians 1:6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is your favorite hymn or praise during worship services in church school? Why do you like that particular song?

Submit to the Lord and Love the Church

The Church's One Foundation
I Love Thy Kingdom, Lord
We are Willing, Use Us

Opening Discussion

Due to the Covid pandemic, we haven't been able to have in-person services for a long time. Please share with your group what your worship experience was like during that tim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day's passage says that a wife should submit to her husband as to the Lord. Here, husbands are compared to Jesus. Also, it instructs husbands to love thei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Wives are compared to the church. This scripture is an exhortation to both wives and husbands. This text may not be welcomed by the wives of this time and generation. I think there may be many wives who object to it. Nevertheless, when we trust that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this teaching can't be easily ignored.

When wives obey the Word of God and submit to their husbands, they will see the renewal and restoration of families. Also, when husbands love their wives with sacrificial love, they will see the work of God being done in their families. When there is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we will see a great victory in our homes. This incredible power comes from the Lord Jesus and this is a blessing promised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Because we are not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e barely see the power of restoration in our homes and churches. Today's message is specifically given to husbands and wives. As Paul says, "This mystery is great, I speak of Christ and of the church." Today's text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May we remember that. The head of the church is Christ and the church belongs to Jesus.

Church is where Christ should be elevated and Christ should be manifested. If Jesus is not seen at a church, that church should reconsider how they worship. Then it only becomes a building to host social gatherings. Due to the Covid pandemic, churches are experiencing the rare circumstances of not having in-person services. Now, we are seeing many congregants still not returning to worship services. Eating out is back to normal but going to church isn't. After the pandemic, the pews are empty while the head of the Church, Jesus Christ, is waiting for the spiritual wives to come back. This is not a healthy marriage. Our Lord's love is steadfast. Spiritual wives need to return to their spiritual home. Church is the place that offers the joy and peace which the world cannot offer. Jesus is waiting for you, come home.

Into the Word

- What did Apostle Paul instruct the husbands to do following Jesus' example? (vv. 26–27)

Into our life

- Are you submitting to your husband? Are you loving your wife as Christ loves His church? If not, why not?

Memory Verse | Ephesians 5:33

However, let each one of you love his wife as himself, and let the wife see that she respects her husband.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your child if they love Jesus. Ask how they can express the love of Christ.

Do You Have the Marks of Christ?

How Can I Keep From Singing?
Have You Failed in Your Plan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Opening Discussion

In our life, we find ourselves being wounded and hurt. If there is an emotional/spiritual wound that was healed through Jesus, please share that experience? You may also have wounds inflicted by a church. Please share that.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importance of Galatians is to know the reason why Paul had to write this letter to Galatia. In chapter 1, we read that there were people who preached a different gospel. They taught believers to be circumcised and to obey the law. Paul's urgency is indicated in verse 11, "see what large letters I use." Paul had no option but to write in large letters and it was for the Galatian Christians to pay attention to that. Paul went through many sufferings and trials. His eyes were getting weak, and he could no longer see well. Perhaps it wasn't easy for him to write. In spite of that, he had to write a letter to the Galatians. Large letters convey Paul's earnest desire so that the Galatian believers would stand on sound doctrine and the truth.

Only through Jesus, we are justified and saved. There is no other gospel. Therefore, Paul writes in verse 15,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what counts is the new creation." The law will not bind us and in Christ we become new creations and become God's children. We become the children of Abraham. When we live in the Spirit, we will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The Bible also teaches that "the gospel is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for those who believe, it has the power to save (1 Cor 1:23, 18). Therefore, we have nothing to boast

about but Jesus Christ.

Regretfully, there are more Christians who are busy boasting about themselves rather than boasting about Jesus Christ and his sacrifice. The New Year's dish, tteokguk, has its significance because of the tteok and it really doesn't matter whether it has man-du or not. This matter has nothing to do with our salvation, but people fight over how it should be cooked. Families also argue over political persuasions and get offended when their opinions are not accepted.

It is "I" that needs to be crucified and when it is done, we will see Christ's power emerging. Our boast should be no other than the cross of Jesus. We cannot present the gospel if we insist on self-seeking but deny self-sacrifice. We have to show the marks of Jesus as the apostle proclaimed. Furthermore, even without mentioning the marks of Jesus, we can become Christians for whom the marks of Christ can be evident through our lives and examples.

Into the Word

• Is there anything you boast of besides the cross of Jesus Christ?

Into the Word

• Do you have the marks of Jesus? How does it show through your life?

Memory Verse | Galatians 6:17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you proud of that you want to share with God? Would God like it if you are a good student or if you are a good athlete? Would it please God if your focus is not worshiping and honoring God but on your school or sports?

Through ONE who Gives Me Strength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I Need Thee Every Hour
Lord I am Satisfied with Only You Alone

Opening Discussion

When was the hardest time in your life? When was the happiest moment in your life? Let us share togethe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are things in our lives that we are unable to change. For example, we can't choose to whom we were born. Some people were born into the richest families. Some were born to a father who was alcoholic and beat their mother. Some were born to middle class families. We do not choose these situations. The family and the background we were born into was already decided. Therefore we can't just complain about the families we were born into like, "why aren't we rich?" Complaining is no good at all, since we can't be born again to a different family. Even though we can't do anything to change the family background we were born into, we are able to change anything that comes after. There is only one way of being born again, which is a rebirth in Jesus Christ by trusting Him.

Jesus teaches us the secret of not wasting our time to complain about our birth and background through Apostle Paul. It is "being content." Apostle Paul said that he has learned to be content. Apostle Paul was born again on the way to Damascus when he met Jesus Christ. It was not only the name change from Saul to Paul, but his whole being changed. His change is like someone who gave up their title as CEO, their PhD, their prestige as a member of congress and their comfortable life in order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people in other countries. In his severe suffering and chal–

lenges, Paul said he learned to be content. Apostle Paul confessed that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n this verse, living in plenty or in want are the given situations. They are the economic and financial status which were given. When Apostle Paul learned to be content in any situation, he learned that being content is not from his own effort and strength, but it is from God. There is a popular gospel song, "I am satisfied with God alone." Let us ask ourselves sincerely if we are content and satisfied with God only.

To Apostle Paul, "the one who gives me strength" was Jesus Christ. Paul confessed that he can do anything through Jesus Christ. The reason for his confident confession is that he learned to be content in any situation, whether he was well-fed or hungry, in plenty or in need. "Being content" only comes when we discard our own greed and rely on God alone. Then we can confess tha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One who gives me strength."

Into the Word

- Is your contentment "self-sufficient" or "God-sufficient?" (v. 11)

Into our life

- How did I behave and respond when I was living in need versus when I was living in plenty?

Memory Verse | Philippians 4:13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Sharing with your children

Is there something you want to have now? Would you be happier if you could have it?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When We Walk with the Lord
Simply Trusting Every Day
O Turn Ye

Opening Discussion

Let's talk about how you came to believe in the gospel.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Paul, who stayed in Thessalonica for a short time because he had to flee quickly, always wanted to return to Thessalonica. However, when things were not going well, he wanted to encourage and comfort the people through Timothy. Paul met Timothy again in Corinth and Timothy shared the good news about the Thessalonian church. There were many tribulations, but the news was that they were setting an example for all believers by keeping their faith. For this, Paul thanked God and praised and encouraged the Thessalonian church, remembering their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Jesus Christ (v. 3).

Faith necessarily entails action. We must obtain salvation through faith and live the responsible life of those who have been saved. Why are the Thessalonians persecuted? Because they forsook idols. This is because they served only God, not false gods, but the living and true God. Faith requires action that transforms our lives. This history of faith was also shown by the people in Ephesus. The converted Christians in Ephesus burned the idols, and the magicians gathered the magic books and burned them after they accepted the gospel (Acts 19). What idols should we throw away now? Are you hindering the work of faith with an unholy life?

Love involves sacrifice and service. God's love was reveal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In Thessalonica, there was the sacrifice of Jason and the brothers of the faith. The Jews broke into Jason's house and searched every corner of the house to find Paul. However, knowing that Paul was not there, the Jews brought Jason and the believers to

the town mayor. In the end, Jason was fined. They suffered economic, psychological, and material damage. However, Jason and his brothers of faith endured the hard work with their love for Christ and passion for the gospel, and the Thessalonian church became a cornerstone on which to build their faith more firmly.

Above all, the Thessalonian believers were able to overcome tribulation because they had hope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n fact, the Thessalonians believed tha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was imminent. In the second half of the letter, or in 2 Thessalonians, a warning is given of this imminent second coming. But what is certain is that the saints can endur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ho will come again. The Thessalonians confessed in the last days that "Jesus will deliver us from the wrath to come" (v. 10). Paul encourages the saints and says agai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so that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1 Thess 4:17).

Into the Word

• Why were the Thessalonian church members examples of faith? (v. 6)

• What kind of faith should we have based on the example of the Thessalonian church? (vv. 9–10)

Into our life

• Is my life an example of faith like the saints of the Thessalonian church?

• Are the works of faith,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appearing in my life?

Memory Verse | 1 Thessalonians 1:6 – 7

And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for you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the joy of the Holy Spirit, so that you became an example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in Achaia.

Sharing with your children

After soaking a coffee filter in water, add a drop of paint or make a dot with a washable marker. Discuss how this represents sharing the good news of faith.

MISSIONARY OF THE MONTH

Lee, Minkyu

Advance
#3022597

Country
Philippines

Serving At
Wesley Divinity School, Wesleyan University

Home Country
South Korea

Contact info
minkyulee@umcmisson.org

The Rev. Minkyu Lee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a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Wesley Divinity School, Wesleyan University. He is based in Cabanatuan, Philippines.

Rev. Lee has a deep love for theology and for sharing this passion. He has taught theology, hermeneutics, New Testament and Christian world view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With experience in campus and youth ministries, he takes a pastoral approach to teaching and mentoring other clergy. He is highly invested in the efforts to see local pastors in the Philippines receive much-needed theological education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ir churches.

"My ministerial situation is unique in working in multiple countries and cultures with different academic settings," Rev. Lee said. Although he never imagined becoming a missionary, he noted, "As I look back, I believe that God naturally led my way to the Philippines to continue my vocational journey and to fulfill my mission task as an ordained pastor and biblical scholar beyond my ethnic/cultural boundary."

Rev. Lee believes that God calls and sends all Christians into the world to share the gospel. "As

we participate in God's mission," he said, "our primary task must be the work of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lthough I am still wrestling with my sense of security and wondering about my ability to fulfill the task, I believe God calls and invites me to participate in God's mission, and I believe God will fulfill his/her mission and lead me to accomplish my task in my life."

Born in Incheon, South Korea, Rev. Lee earned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theology (2000) and a Master of Arts in New Testament studies (2002) from Hyupsung University, Hwaseong, Gyeonggi, South Korea; Master of Divinity, 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2006); and Ph.D. in New Testament studies,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2013).

Prior to his present assignment, Rev. Lee served as youth pastor, Hyde Park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2008–13); associate pastor, Baguio City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Baguio City, Philippines (2013–14); and lecturer (adjunct professor) at several schools in South Korea: Hyupsung University (2014–20), Mokwon University, Daejeon (2016–20),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7–20), Yonsei University, Incheon (2015) and Pai Chai University, Daejeon (2016).

Rev. Lee is an ordained elder in the Northwest Philippines Annual Conference. He and his wife, Donghyun Koo, are the parents of three children: Yehna, Naeun and Eunyu.

"Knowing the importance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biblical studies for church ministry and mission," Rev. Lee said, "I strongly feel that God is fulling his mission in my ministry, and I am participating in it with my vocational vision and gifts. My prayer is that as I continue my vocational journey in the

Philippines, God's hand gives me strength to accomplish my task for theological education and to share lots of treasures in the Bible with many people."

광야에서는 작은 나무 그늘도 결코 작은 그늘이 아니다

이진희 목사
(웨이코교회,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엘리야는 죽고 싶어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을 찾아갔다. 왠지 아는가? 살기 위해서다. 죽고 싶어 광야로 들어갔지만 살려고 그늘을 찾아갔던 것이다. 로뎀나무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이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엘리야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 그늘에 누워 있는 엘리야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이 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니다. 관목이다. 커야 2미터 정도다. 잎은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다.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피할 만한 나무 그늘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라도 몸을 숨겨야 했던 것이다. 한낮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조그마한 관목 그늘 아래 겨우 얼굴을 숨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처량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누구도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들렀다 가야 한다. 가능하면 자주 들를수록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좋다. 그래야 더 빨리 안전하게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광야 길은 오아시스를 따라 나 있다. 모든 광야 길은 오아시스로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을 무시하고 지름길로 갔다가는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광야에서 오아시스처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이다. 사막에는 물이 떨어져도 죽겠지만 나무 그늘이 없어도 죽을 수 있다. 물이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늘이 없다면 그 광야를 건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누구도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의 다음 목적지는 오아시스이다. 그러나 오아시스는 가끔 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바로 다음 목적지는 나무 그늘이다. 사막을 지나면서 계속 찾는 것은 나무 그늘이다. 얼마나 더 가면 나무 그늘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며 간다.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나무가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지름길로 가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해도 나무가 없으면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고여덟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아니면 밤에 움직여야 한다. 동방박사들도 주로 밤에 걷고 낮에 쉬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고 싶은가?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오늘도 죽었구나"라는 생각부터 한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글거리는 태양이다.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곳을 건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광야에서는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살아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한다.

광야에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는 서두른다고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들렀다 가야 하는 것처럼 나무 그늘도 마찬가지다. 그늘을 만나면 충분히 쉬었다 가야 한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시 121)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남쪽에 떠 있다. 정중앙에 떠 있는 것이다. 제일 더울 때이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린다. 그런데 니무 그늘 하나 없는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사 25:4)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고 하니, 좀 시시한 것 같은가? 아니다. 그것은 광야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광야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그늘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무 그늘이 없는 광야는 오아시스가 없는 광야와 같다.

십자가 그늘 밑에

엘리야는 낙심했을 때 광야로 들어가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로뎀나무 아래 누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교회가 우리의 그늘이 된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겨자 나무가 되었다. 새들이 날아와 깃들었다.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다. 피곤에 지친 우리에게 쉼과 힘을 주는 곳이다.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는 곳이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웠던 엘리야처럼. 교회는 엘리야와 같은 이들에게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주어야 한다.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저 그만 이혼하고 싶어요." "저 그만 접고 싶어요." 그런 이들에게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주어야 한다.

하갈이 아들과 함께 남편에게 쫓겨났을 때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화살 한바탕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왜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두었던 것일까? 하갈이 쫓겨난 그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관목 덤불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가? 로뎀나무다. 왜 로뎀나무를 찾아갔을까? 그늘 때문이다. 요나가 그늘을 만들어주던 호박덩굴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자 하나님에게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깟 호박덩굴 하나 말라버렸다고 죽고 싶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느티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교회가 느티나무처럼 큰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로뎀나무와 같이 작은 그늘밖에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면 로뎀나무 같은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로뎀나무 그늘이 광야에서 하갈을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지 않았는가?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01. 언더우드의 신혼여행 전도사역

한국 최초의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는 26세의 총각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젊은이답게 선교적인 열정에 충만했으며, 다른 선교사에 비해 한국어도 빨리 배웠다. 하지만 총각인 그에게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결혼이었다. 낯설은 곳에서 총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중 한 여자 의사가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 이름은 릴리아스 홀튼(Lilias Horton)이다. 홀튼은 어린 시절 류마티스에 걸려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대학 교육이 젊은 여자의 신앙에 방해가 될 거라는 여론도 한몫했다. 하지만 홀튼은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인도에서 온 영국 부인이 인도의 비참함을 말하면서 선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감명을 받은 홀튼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어 인도에 가려고 작정하였다. 당시 홀튼은 30세의 나이였다.

그는 노스웨스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여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다. 원래 예민한 감정을 가진 홀튼은 피를 보며 수술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선교를 위해 참았다. 그 뒤 수련의 과정도 마쳤다. 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도를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에 장로교 선교부는 홀튼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홀튼은 명령에 순종하여 한국에 왔다.

홀튼은 1888년 봄 36세의 나이에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곧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병원에서 일했다. 홀튼이 한국에 온 지 약 6개월 후 명성황후를 진찰할 기회가 있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외모는 비슷했다. 키는 작았으나 둘 다 아름다웠고 자신의 행동을 분명히 했다. 그 뒤 이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다.

이런 가운데 언더우드와 홀튼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홀튼은 언더우드보다 8살이나 위였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홀튼은 모든 꽃 중에서 순백색 인동넝쿨 꽃을 가장 좋아했는데 언더우드는 이것을 알고 이 꽃을 홀튼의 집에다 배달하곤 했다. 결국 두 사람은 1889년 3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명성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황후는 선물로 현금 1백만 냥을 망아지에 실어서 보내기도 했다.

결혼식 다음 날 새벽 언더우드와 홀튼은 9주간의 예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 장소는 압록강 내륙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만주의 로스 선교사의 노력으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을 방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언더우드 부부가 이곳을 방문하겠다고 자원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달콤한 신혼여행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전도여행이었다. 하지만 홀튼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어떤 신혼여행도 이렇게 꿀맛이 넘치는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현된 여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신혼여행 동안 한문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당시 조선은 국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어떤 법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홀튼은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6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에는 여관 시설이 형편없었다. 이러한 시설보다 이 신혼부부를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그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창호지에 침을 발라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홀튼은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말했다.

"방문마다 손가락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쉬려고 해도 창문 구멍마다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겠어요"

이것은 멋진 신혼여행이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부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신혼여행을 멋지게 사용한 것이다.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07

세이비어교회의 핵심 사역원리 2

5. 빈민주거사역 모델–"새 공동체 교회(New Community Church)"

60년대 워싱턴의 흑인민권운동 시 폭동의 진원지인 샤(Shaw)지역에 위치한 세이비어교회의 9개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 가운데 한 곳이 새 공동체 교회(New Community Church)이다. 이 교회는 1982년 짐 디커슨(Jim Dickerson)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짐 디커슨 목사는 미 중부 아칸소주 출신인데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그의 부모는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모는 아들인 짐 디커슨을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22세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교회가 내적인 영성인 하나님 사랑과 외적인 실천인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세이비어교회에 관한 책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 교회가 바로 자신이 꿈꾸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세이비어교회가 있는 워싱턴 DC로 오게 된 것이다. 그의 목표는 세이비어교회에서 그 사역을 배우고 자신의 고향인 아칸소주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역을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샤 지역에 있는 폐허가 된 현재 새공동체교회(New Community Church)의 건물을 구입하였다. 이 지역은 60년대 흑인민권운동 시 워싱턴 지역에서 첫 번째 폭동이 일어난 지역이었고 폐허가 된 채 방치된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 교회 건물은 마약을 파는 곳이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내가 사역해야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

유일한 백인가정으로 흑인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흑인학교에 보내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고,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새 공동체 교회는 지역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지역은 원래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지역이 개발되고 흑인들은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밀려 나가게 되었고, 백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지역의 교회 또한 흑인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새 공동체 교회만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대신 이 지역에 집들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집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맞게 거주하게 해주는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사역을 진행하는 워싱턴 지역의 소외자들을 위한 주거사역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만나"주거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새 공동체 교회의 또 다른 사역자는 짐 멜슨(Jim Melson) 목사인데, 미연합감리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자원봉사자로 세이비어교회를 만나게 되며 짐 디커슨 목사가 지도하는 "소외자들과 함께하는 삶" 과정을 공부하면서 도심지 사역에 대한 소

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워싱턴 근교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북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며 가족들과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그런 그의 목회는 점차 좌절로 변해갔고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될 때 노숙자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과 연결이 되었다. 그의 교회는 1992년 2월부터 매달 네 번째 화요일 저녁시간에 노숙자 환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며 세이비어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 만남이 "내 일생을 걸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한다.

새 공동체 교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짐 멜슨 목사의 주요 사역은 "고넬료 사역"이다. 이 사역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다. 초대교회의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었다. 21세기 미국에서의 장벽은 인종적인 편견과 경제문제에 근거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역은 흑인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역이다. 도심지의 흑인빈민지역 교회와 부유한 교외 지역의 백인 교회들을 연결하여 진행하는 고넬료사역의 주요 내용은 ①교차 방문 프로그램 ②세미나 ③자원 봉사 프로그램 ④공동 프로젝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백인과 흑인, 남과 여,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성과 그 영성을 기초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새 공동체 교회는 타 교회들이 모두 떠났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중독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에게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Becoming Church 프로그램에 장소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나눔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나눔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한국 교회의 미래목회의 대안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특별히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의 연결점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새 공동체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 신실성의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이 바탕이 되고 있다. 때로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역들을 진행할 때 개발업자들이나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도 중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이다. 이러한 영성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소득에 맞는 집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짐 디커슨 목사는 영성의 핵심은 기도만이 아니고 삶까지도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다. 영성이 바탕이 되어 소외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의 삶까지도 터치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쉽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부활을 꿈꾸며

노유정_살렘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50회가 넘었습니다. 계속 음성이 나오다 보니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곧 백신을 맞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니 증상이 없어도 열흘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내가 정말 코로나에 걸린 걸까? 혹시 엄마한테 옮겼다면 큰일인데…. 큰 아이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마스크를 쓰고 방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고 마스크를 쓴 남편이 빼꼼히 고개를 들이밀며 하는 말, "많이 놀랐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 내가 많이 놀랐다는 걸 알아주는 것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혹시 증상이 심해질지 모르니까 미리 말을 해야겠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하는 거야" 남편이 말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운 게 많지. 근데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푹~ 쉬어."

내게 소중한 사람들, 내 인생의 중요했던 순간들, 그리고 나의 장례식 장면까지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표현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진단 회사를 바꾸고 나서 무증상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 보건당국과 상의 후 추

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의 검사를 하고 두 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false positive였던 걸로 판단이 내려져서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5일 정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격리 생활을 체험하며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 사연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여러모로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라고 충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고 며칠 동안 60도를 넘나드는 따뜻한 날씨에 금방이라도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Lock down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던 작년 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엄마를 모시고 마스크를 쓰고 의사 오피스를 방문했던 일 년 전 어느 봄날이 떠오릅니다. 오피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전화를 걸어 도착을 알리니, 의료진이 전화를 할 때까지 차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대기실에는 social distancing을 위해서인 듯 의자들이 중간중간 거꾸로 뒤집혀 있고 기다리는 환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과 절차들로 인해 코로나가 바꿔놓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하신 엄마를 모시고 한국 식품점에 가서 구경을 시켜드리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고 헌금을 내기 위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엄마도 오랜만에 교회 건물을 볼 수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가 왼쪽 curb에 부딪히고 흔들리면서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1-2분 정도 더 운전을 하고 내려서 보니, 운전석 아래 타이어가 납작한 겁니다. ' 아, 이게 말로만 듣던 flat tire란 말인가?' 도저히 더 이상 운전을 해서 집까지 갈 상황은 아닌 거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있었으면 너무 멀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서 20분 만에 교회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타고 온 차로 물건을 옮기고 엄마를 모시고 보조 타이어로 교체를 준비하는 남편을 남겨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flat tire 가 됐던 그 순간이 자꾸만 생각나고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데, 한참만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조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곧장 가게로 갔는데, 타이어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service charge만 받고 새 tire로 교체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탄성이 나왔습니다. Flat Tire를 처음 겪으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고, 연락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좋은 가게 주인을 만나서 사후처리도 잘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요즘 코로나의 여파로 삶이 Flat Tire처럼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받으며 임시로 보조 타이어를 장착한 듯 불안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업체들이 하루속히 새 tire를 장착하고 다시 쌩쌩 달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덧 1년,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지난 일 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며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던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과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우내 가지만 앙상했던 나무들이 새순을 피우기 위해 쫑긋쫑긋 봉우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흥얼거리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찬양곡을 부르며 우리 주님이 이 길 끝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펴는 날을 꿈꾸며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흔드심의 사랑

조유미 _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주 전 한파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달라스 날씨는 화창한 봄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봄, 나는 어려서부터 따뜻하고 화창하고 밝은 봄이 좋았다. 커피를 내린다. 은은한 커피향을 맡으며 창문을 통해 봄 날씨를 만끽하다 유리창을 통해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는 적당히 주름도 보이고, 흰머리도 눈에 띄는 중년의 여인이 서있다. 낯설지 않다.

2019년 6월 25일 새벽, 따사로운 봄을 좋아하는 나에게 폭풍우처럼 다가오신 주님, 그때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지도 모르고 너무 아프고 두려워 그저 울기만 했는데,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그날의 일을 담담히 글로 적어볼 수 있는 만큼 내가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른스럽구나, 착하구나"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와 삼촌들까지 다 같이 살던 대가족의 첫 손주여서 아기 때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했다. 식구들이 항상 아기인 나를 서로 안아 보겠다고 다툴 정도여서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가 거의 없었다고 고모들에게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난다.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배경 위에 초등학교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부모님의 이혼으로 갑자기 훅 혼자서 어른이 되어버린 아픈 기억도 있다. 할머니와 고모들이 돌봐주시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집에서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누구에게 물을 수도, 또 엄마가 보고 싶어 울 수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으로 커 갔던 거 같다.

주일 학교 교사였던 막내 고모를 따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

기 시작했고, 그 후 교회생활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특별한 집회나 행사가 없어도 주말이나 방학이면 늘 교회로 달려갔고, 가보면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친구들이 와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라면도 끓여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고등부에 들어갈 무렵, 그때 막 한국에 불기 시작한 CCM 열풍에 맞춰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찬양팀이 생겼고, 피아노로 찬양팀을 섬기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회 커플이 되었다.

긴 연애가 시작되고, 둘 다 대학생이 되어 사귀던 중에는 남편 가족이 오래전 신청한 미국 영주권이 나와서 3년 반 동안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애틋한 장거리 연애 시간도 보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94년에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으니 올해로 미국 생활 27년 차에 접어든다. 달라스는 이제 내가 한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시작한 미국에서의 결혼생활은 크고 작은 추억으로 뒤엉켜있다. 이민을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곳이 내 광야구나"라고 느끼는 시간도 보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 그 흔한 운전면허 따는 것까지 내겐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아직 학생이었던 남편을 향한 미움과 섭섭한 감정들이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잘 인내하는 사람이야"라며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온 내 당연하고 편한 모습들이 결혼생활의 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삶의 굴곡을 경험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미국 생활이 편하게 느껴지는 결혼 25년 차가되던 초여름 어느 새벽이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눈이 떠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느낌, 가슴이 조여져오고,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나를 짓눌렀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잠을 못 자거나 걱정으로 마음이 오래 힘들거나 한 적 없는, 나름 마음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는 이 생경한 느낌이 너무나 무서웠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뭐예요, 저 죽을 거 같아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에서는 그 이상의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볼까, 아니야 이러다 말겠지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불면의 밤은 사흘이 지나도 계속되었고, 그 사흘째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한 구절

읽기도 어려운 그 시간에 나는 마침내, "하나님, 저 어떻게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소리 없이 울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읽을 수 없다면 설교라도 듣자는 생각이 스쳤다. 유튜브를 열어 처음으로 뜨는 설교를 눌렀다. 소그룹 성경공부에서 자주 자매들과 나누던 익숙한 목사님의 말씀이다. 회개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 순간 침대 위에서 고꾸라지며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나에게 두 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네가 교만하다."였고, 다른 한 가지는 "남편을 깨워서 용서를 빌어라!"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것은 "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고 바로 인정을 했지만, 두 번째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용서를 빌려면 저 사람이 해야지요, 제가 미국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저 싫어요, 안 할래요." 라며 바로 따지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단호하셨다.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라!

나는 우선 살아야 했다.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니 남편이 놀란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남편에게 앉아 보라고 하고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사흘째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며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바로 그 순간 사흘 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알 수 없는 가슴속 돌덩이 같은 게 쑥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아 이거구나, 이걸 내가 해야 하는 거였구나…

나는 늘 우리 가정이 지켜진 건 내 공로라고 생각해 왔다. 감정적이고 호불호가 강한 남편과 달리 나는 화도 잘 내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뭐든 쉽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남편이 화를 내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중심을 지키려 노력했었던 거 같다. 그런데 이런 세월들이 쌓이고 쌓여 내 맘속에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숙해"라는 큰 교만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다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서 남편도 만져주셔서 나처럼 온유하게 바꾸어주시면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결론까지 내려놓고 심지어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은 나의 교만부터 깨기 원하셨고, 정확히 그 일을 행하셨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내 무릎을 쳐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순종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 그 후의 남편의 반응은 더 놀라웠는데, 나의 뜬금없는 사과에 남편은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럼 나는 더 미안하지"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었고 그때부터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나를 성심성의껏 보살피기 시작했다.

애틋한 장거리 연애 후에 결혼한 터라 나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들어오시니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다. 오랜 시간 기도하던 것들이 내 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눈앞에서 펼쳐지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그렇게 강권적으로 흔드신 후에, 내 삶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제거해 나가게 하셨고, 부부 사이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트이게 하시며 또 한 가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가정예배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셨다. 내 욕심으로, 혹은 사람들의 권유에 떠밀려, 또 많은 순간 칭찬에 우쭐해하며 하던 여러 사역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새롭게 열 것은 새롭게 열어주셨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었지만, 이것 또한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는 "착한 아이"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떨쳐내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다.

나의 불면증은 그 이후로도 꽤 오래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에 눈이 떠질 때마다 나는 무조건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생명수같이 내게 부어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눈물의 연속이었다.

강권적인 사건으로 나를 만지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과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 주셨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훈련으로 밀어 넣으셨다.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또 실패했었던가…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니 매번 중도 포기하게 되던 통독과 묵상과 기도가 이제는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원하

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니 어느 하나도 나를 향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세심하게 나를 젖먹이 아기처럼 돌보시며 인도하셨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늘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채찍질도, 흔드심도, 안고 가심도 다 사랑으로 느껴졌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란 것이, 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절절하게 느껴졌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물으며 가야 함을 배우게 하셨고, 사역, 가정, 자녀, 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주님이 하라 실 때 하고 멈추라 실 땐 멈추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훈련에도 모질게 밀어 넣으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길을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맛보게 하셨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을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흔드심의 사랑"의 시간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아프게도 하시고 가지들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게도 하시지만 절대 나무의 밑동을 다 파내지 않으시고 남겨 놓으시는 그루터기 사랑을 조금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맛본 이 사랑을 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하며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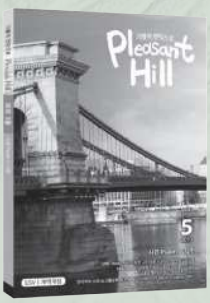
사람들 앞에서 "착한 아이, 성숙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늦은 나이에라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김태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문정웅,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신승호,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가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벧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401-3872)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이대규, 262-658-1131)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주일
05		4	05		주일	05		4–5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주일
12		4	12		주일	12		12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주일
19		4	19		주일	19		18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룻기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11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5	01	사도행전	1
02		주일	02		6	02		2
03		3-4	03		7	03		주일
04		5-6	04		8-9	04		3
05		7-9	05		10-11	05		4
06		10	06		주일	06		5
07		11	07		12	07		6-7
08		12	08		13	08		8
09		주일	09		14	09		9
10		13	10		15	10		주일
11		14	11		16	11		10
12		15	12		17	12		11
13		16	13		주일	13		12
14		17	14		18-19	14		13
15		18	15		20	15		14
16		주일	16		21-22	16		15
17		19	17		23	17		주일
18		20	18		24	18		16
19		21	19		25	19		17
20		22	20		주일	20		18
21		23	21		26	21		19
22		24-25	22		27-28	22		20
23			23		29	23		21
24		26-27	24		30	24		주일
25		28	25		31	25		22
26		29	26		32	26		23
27	역대하	1	27		주일	27		24
28		2	28		33	28		25-26
29		3	29		34	29		27
30		주일	30		35	30		28
31		4	31		36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애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박효연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박효연 전도사 (체리힐제일교회, NJ)

❖ **주일 칼럼**
강학구 목사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PA)
김만식 목사 (시애틀푸른교회, WA)
이요한 목사 (달라스연합교회, TX)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홍진호 목사 (시카고중앙연합감리교회, IL)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